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二面

社說

學問과實際生活

一

우리는 恒常 眞理를「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한다. 이말은 知識이 人間生活을 運轉하는 힘 곳 原動力이 된다는 말이다. 果然 人類의 悠久한 歷史를 回顧해 보더면 人類는 未開하엿던 原始時代로부터 文明한 現代까지 知識的으로 一步一步 進步함을따라 人生은 차츰 보담놉고 보담나흔 階級에로 向上發達해 온것이니 人類는 知識이 發達됨을따라 世界를 發見하고 또 自我를 發見하엿스며 自然의 法則을 發見함에 依하야 自然征服의 壯途를 밟어온것이다. 이리하야 知識은 新知識을나코 眞理는 또 新眞理를 探求케하야 世界의 秘密을 暴露하고 人生의 迷妄을 날로 打破하고 物心兩面에 亘한 寶庫를 開拓함으로써 偉大한 人類의 文化를 地上에 建設해온것이다.

二

이리하야 知識은 새로운生活을나코 새로운生活은 다시새로운 眞理를 發見케하야 時時刻刻으로 人類의 生活은 進展發達되어온것이니 決코 知識과 生活이 別個의 存在로 分離되어잇는것이아니오 極히 密接한 關係로써 微妙한 交互作用알에 因果를 지어온것이다. 이것을 한말로써 換言하면 知識이오 참다운 知識이라면 늘 生活을 運轉 乃至 變革할힘을 가진것이다. 眞理는 眞理대로 超然히 存在하고 生活은 生活대로 存在하야 兩者間에 何等의 關聯이 업다면 知識이나 眞理가 貴할것이 무엇이며 이를 歡迎할까닭은 무엇인고? 近來 人類生活이 複雜化하는데따라 社會分化的傾向이 濃厚하야 知識專門이라 稱하는 一階級이 形成되며 或은 眞理는 眞理를 爲하야 探求한다는等의 極端說도 出現하엿스되 이는 보잘것업는 臆說로 取扱할수밧게 업는것이다. 우리로하여곰 傳統과因習의 무거운鐵鎖를 끈코 새로운 生活을 엇기爲하야 아프로 突進케한것은 知識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엇드냐? 果然 아는것이 힘이다.

三

이제 우리社會를 돌아보건대 所謂 甲辰開化以來 三十有餘年間 우리는 新文化를 輸入하고 敎育의 普及에 힘써서 今日에는 物心兩方面에 亘하야 前에 比할수업던 發展을 보이고 잇지마는 들어다본다면 三十有餘年이란 긴歲月에 우리는 무엇을 하엿을가하고 懷歎하지 안흘수업는點도 업는바 아니라는것을 否認할수는 업다. 그것은 敎育普及에 依한 知識의 向上 乃至 普遍化에 比해서는 우리의 現實生活 乃至 實際生活 그것은 너무도 舊態依然한바가잇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傳統의 무서운힘을 다시한번 認識하는것은 勿論이어니와 아직도 우리知識은 우리의 實際生活을 舊殼으로부터 脫出케할 權能과 힘을 가진 偉力的知識이 되어잇지안는모양이다. 이러한 生活을 變革치못하는 知識이라면 우리에게 아모런 所用도 안되는 너무나 高價의 裝飾品이라고밧게 할수업는것이 아닐가?

四

實際로 우리들의 家庭生活이나 社會生活속을 들여다보더면 經濟方面에잇서서는 아직도 封建的遺制인 [illegible] 觀念에서 [illegible] 胚胎한 [illegible]이 存在하엿스며 所謂 文明의거리를 橫行하고잇지안는가? 物質方面에서도 假令 衣食住方面에 잇서서 얼마나 우리의 生活을 改善햇는가? 非經濟的, 非衛生的인點에잇서서 예와 別로 다름이 업는 것은 一目瞭然한바다. 或은 外形的만은 남의것을 본떳스되그것은 [illegible]한 模倣이오, 우리의 것으로 創造해보지못한것이 今日의 現狀이다. 이리하야 統一이업고 指導原理가업는 生活을 [illegible]할뿐이니 어찌知識이 生活의 [illegible]力이되어 그創造的役割을 한다할수잇스며 民族文化의 積極的發展을 期待할수잇스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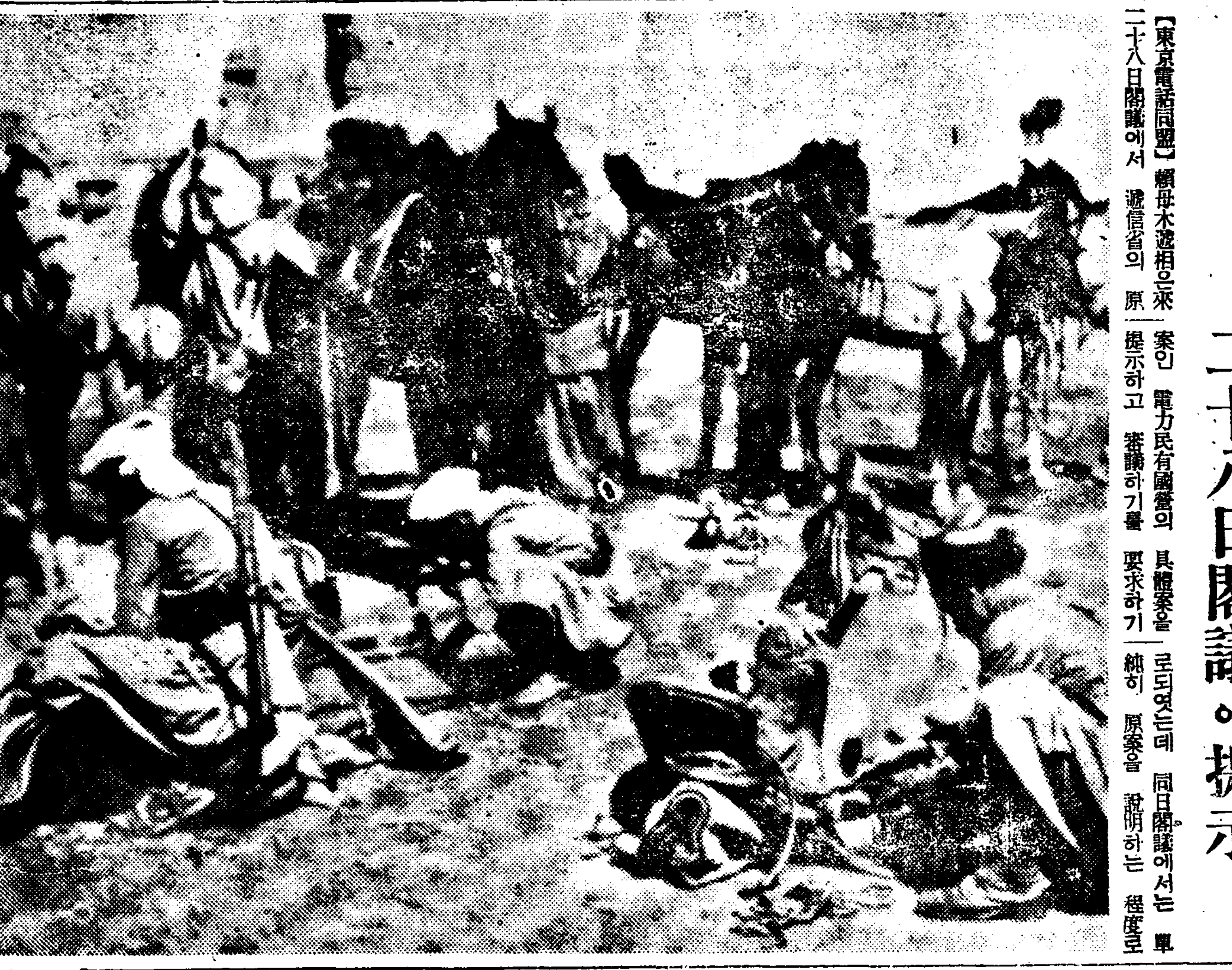
[illegible]

獨商船臨檢事件에
「히」總統重大決意
西班牙政府의無誠意豫想코萬般準備進行

【伯林二十一日發同盟】 히틀러總統은 二十一日午後 別邸에 海軍軍令部長레다提督을 招致하고 카메룬號 不法臨檢事件에 關한 西班牙政府의 回答을 압두고 重要協議를 遂行하엿다 히틀러總統은 아마 西班牙政府가 獨逸政府에 滿足을 與할 陳謝를 行하지안흘 境遇에는 斷乎한 態度를 取하기로 軍大決議를 鞏固히하고 레다提督에게 萬一에對한 準備를 命하엿다한다 (寫眞은 히틀러氏)

佛人二百名西政府軍에加擔

【巴里廿一日發同盟】 에코드파리紙의 報道에 依하면 佛國人二百名은 西班牙政府軍에 參加하기爲하야 二十一日 바르셀로나港에到着하엿다한다 右義勇兵은 反팟쇼監視委員會의 指揮下에 人民動員委員會에 屬한다고한다



電力國營具體案
二十八日閣議에提示

【東京電話同盟】 賴母木遞相은來 二十八日閣議에서 遞信省의 原案인 電力民有國營의 具體案을 提示하고 審議하기를 要求하기로되엿는데 同日閣議에서는 單純히 原案을 說明하는 程度로 ...

罘치고 審議方法으로는 關係閣僚만의 審議로할는지 又는全閣僚의 審議에 供할는지이點에對하야 協議한後國策이로서의 採否를九月上旬頃 正式決定하게되리라고豫想되는데 審議結果 多少修正意見은 나오다하드라도 遞信省으로서는 原案대로
一、電力民有國營
二、特別會計에設置
等二點에 對하야 絶對妥協을排擊하고 强硬한 態度로써 臨할方針이다

日本商社使用의
中國人을逮捕!
河南、湖南、湖北一帶排日運動
漸次로擴大表面化

【漢口二十二日發同盟】 當地日本商社使用의 中國人十餘名은 八月中旬竹皮를사기爲하야 河南省에드러간後 消息을끈허 念慮되는바 二十二日에이르러 前記中國人은 河南省政府에서 日本軍事探偵의嫌疑를受하야 逮捕되고 다른商社使用中國人도 積荷를拋棄하고온事實이 判明되엿다 日本人商社側은 善後策을 協議하고 近日漢口總領事에 鄭州領事를 通하야河南省政府에 嚴重抗議하고 逮捕中國人의釋放을 要求할터이다 또竹皮를사기爲하야 相當히 多額의 現金取引을 終了하고 貨物取扱을 省政府때문에積荷不能이 되엿스므로 日本人商社의 損害는 자못 莫大할모양이다 最近 河南、湖南、湖北一帶의 排日運動이 漸次表面化하고잇는此際注目된다 事를 비롯하야 큰變革을 行할생각은 업다 自己의 統治의 大眼目은 朝鮮人의 利害를 主로 言中에實行하려는것이다 그것은 實行을宣傳하고 不實行으로 못마기때문에 如何히 世上에弊害를 及하여다는가를 吾人은 充分보앗기때문이다

京城驛에 到着한 大野政務總監과 同夫人

不言而實行!
南新總督車中談

【橫濱電話同盟】 南朝鮮總督은二十二日午前九時 東京發特急「燕」號로 赴任途上에 올랏는데 車中에서 大要左와如히 말하엿다 朝鮮統治의 要諦는 이미御詔書에 明示되여잇는바로 總督도 이에基하야 統治하여왓고 治績도 非常히 만하特히 宇垣前總督의 施政方針을 그대로 踏襲하려하는데 細目에對하여는 當事者의 報告를 드러 實地調査와 硏究를 거듭하야 變更할것이다 或은새로 施設하지안흐면 안될것도 잇슬는지 알수업다 그러나人

蘇中通商交涉은
二年前부터繼續
陳國府外交次長言明

【南京二十二日發同盟】 須磨南京總領事는 二十二日午前十一時外交部陳介次長을 訪問하고蘇聯과中國의 密約說과 通商條約締結交涉의其後經過에關하야 國民政府의意向에對하야 陳次長은蘇中通商修好條約은 二年前부터交涉中에잇스나 現在에 잇서서는 交涉은 停頓되엿다 그러나 蘇聯側으로부터 締結하면 密約說을 否定한後 言明하엿다

西班牙動亂畫報

一線에 내세워 活動케하고 잇다는것은 旣報한 프랑코將軍을 首班으로한 西班牙叛亂軍이 弗利加土人의 一族인 무어族을 武裝시켜 第一線에 내세워 活動케하고 잇다는것은 旣報道된바이다。 寫眞은 프랑코將軍을 支持하는 무어族으로된 모록코土人軍의 出戰準備光景。

波蘭名譽領事
西共產軍에게被殺

【와르소우廿一日發同盟】 바렌시아駐箚 波蘭名譽領事는 二十一日共產軍에게 殺害되엿스므로 波蘭政府는 右報道에 對하야 卽時 西班牙政府에 陳謝를 要求하엿다

산세바스찬의
叛軍奪回戰失敗

【앙데卄一日發同盟】 西班牙北部의 要衝 산·세바스찬의 奪還은 卄一日에 이르러서도 戰局이 進展되지안허 政府軍은 산세바스찬近郊 十五粁地點에서 叛軍의 進擊을 阻止하고잇다 市中은 平穩하야 이론、산세바스찬間의 道路도 依然 通行可能이다 政府軍은 卄一日以來 佛西國境地帶에 鐵條網을 베풀고 戰禍의 擴大를 防止하고잇다

政府軍
벤타스市奪回

【앙데(南佛)二十一日發同盟】 西班牙北部國境線附近의 戰況에對하야 當地入電에 依하면 政府軍은 二十一日 砲兵隊의 掩護射擊을 바드면서 叛軍과激戰을 行한結果 벤타스市를 奪回하엿다고한다 死傷者는 雙方이 多數에 達한모양이다 이騷動에約四十名의 婦女子는 國境線을넘어 佛領內에 逃入하야 앙데經由 다시佛國中心部로避難하엿다

匈提督訪獨
獨匈協定案懇談인듯

【維也納卄一日發同盟】 匈牙利攝政호르티提督은 二十一日午後 滯在地維也納을出發하야 伯林으로向하엿다 호르티提督의 獨逸行은 表面狩獵이라고稱하나 히틀러總統과會見하고 獨匈協定案에 對하야懇談하리라고觀測되다 現在 墺太利首相슈시닉博士는 호르티提督의 維也納滯在中 數回에 亘하야 會見하고 最近의獨墺協定에 關하야 會談을 遂한 事實이잇는바 호르티氏의 獨逸訪問은 獨墺匈三國協定締結 나아가서는 三國同盟의 復活의前提가아닌가傳한다

電力國營問題
名稱은變해도內容은不變

【東京電話同盟】 遞信省의 電力國營案에關해서는 二十一日의 [illegible] 閣議後 廣田首相과 賴母木遞相과의 會見의結果 政府에서이를 國策으로審議實行하기로되엿스므로 遞相은可及的速히 이具體案을提示하야 國策閣議審議에 供하기로되엿는데 右會見의際에 廣田首相은 特히電力統制의 名稱을 使用하겟다는旨를 言明한데對하야 賴母木遞相은 首相의 意見은 單히呼稱變更에끈치고 去七月三日의 閣議에서말한 電力國營의 根本方針에關해서는 全然 變更에言及치안헛스므로 首相으로서는 遞信省의 國營案骨子에關하야 審議를 進行하는方針에는 變化가업다고 諒解하고잇다 그러므로 遞信省도亦是從來의 國營案에一指도 不觸하고 旣定方針대로 邁進하기로되엿다 但 右名稱變更은 首相이 反對論을 緩撫하기爲하야 政治的考慮를 拂한結果에 基한것은 想

[illegible] 如左히 말하엿다 [illegible] 總理大臣으로부터 電力國營案은 國策으로 審議하기로 決定하엿다는 旨의 말이잇섯는 때 國營이 統制로 變한것은 名稱變更만이오 決코 內容變更을 意味치안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遞信省으로서는 從來의 方針대로 具體案을세워 國策閣議에 提示할터인데 緊急히는 하지안흘터이다 政府가 國策으로 遂行하기로 根本方針이 決定되면 詳細한 具體案은 議會前에 成立되면그만이므로 그리 急히 서둘것업시 愼重히 立案하고 십다

陸軍豫算提出
九月十日頃?

【東京電話同盟】 陸軍省明年度豫算 [illegible] 省議를 開催하는것이 九月上旬이되고 大藏省에 提出되는것은 느저도 九月十日頃이될 模樣이다 明年度豫算提出이 如斯히 遲延되것은 今回豫算이 從來의 그것과 全然 [illegible]
一、滿洲事件費에 [illegible]를 加하야 이에劃期的[illegible]를 施하고 用兵作戰의 見地에서 內容을 充實恒久化할것
一、航空防空에 重點을 置하야 國軍의 面目一新을 圖하고航空防空費의 全面的膨脹을招來한結果 省部間에 다시 折衝할 時間이 걸게된것
一、昭和十一年度에 實施된 六個年 四億圓의 作戰資材整備費와新規要求의 兵器改善費와의 調整에技術的考案이 必要

[illegible] 二年度豫算의 [illegible] 明年度豫算 [illegible] 二十[illegible] 決定中 [illegible]

國策採擇에
島田農相不滿

【東京電話同盟】 農林國策採擇에 關하야 島田農相은 過日 馬場藏相과의 個別的折衝에서
一、農地制度의 整調
二、農山漁村負債整理의 徹底
三、農業災害强制保險制의 實施
四、農林土木事業의 低額化
五、繼年增殖十個年計劃
의 五項目은 現下 農村振興上 緊急한 對策이다 그나마 이五項目이 一括하야 農村振興의根本的方針을 形成 하는것이므로 이五項中 一項이라도 必要하다는 旨를 强調하고 그後 國策決定의 進展을 靜觀中이던바 政府의 採擇할國策은 廣田首相馬場藏相間의 協議에 依하야 十一項目을 內定하고 또 二十一日의 會議에서도 關係閣僚에게 何等 諒解를 求하지안헛스므로 島田農相으로서는 國策銓衡方法에 關하야 釋然치안흔바잇서今後 農相의 動向은 注目되고잇는데 農相의 意向으로서는 近近 그旨를 首相에게 進言할것으로보인다

米價高關係로
東拓四分配當

東拓에서는 二十一日 東京本社에서 定時株主總會를 開催한結果 上期決算案을 異議업시 可決하엿다 上期業績은 米價高와一般經濟界의 好況에依하야 業務收益은三百四萬圓에 達하고拂込資本金에對하야 一割七分四厘에當하는데 米貨債의元利支拂에依한爲替關係損失百四十八萬圓을 補塡하고 百五十五萬圓을 남겻는데 其中에서 政府補給金殘額五十五萬圓을 返濟하고 結局左와如히 四分의 株主配當을 行하엿는데 配當復活은 實로 昭和六年下期以來의 일이다(單位千圓)

當期純益金	一、五五五
前期繰越金	一、二二二
計	三、七六八
其他處分	
缺損補塡準備金	一五〇
配當平均準備金	四〇〇
役員賞與	六〇
政府納付金	五五六
配當金(年四分)	七〇〇
後期繰越金	一、二六一

米穀證券
七千三百萬圓借替

【東京電話同盟】 大藏省發表 八月二十五日 支拂期日의 米穀證券七千九百五十萬圓(第四十九回)五千百五十萬圓、(第五十三回)二千八百五十萬圓中 六百五十萬圓을現金으로償還하고殘額七千三百萬圓을左記要項대로 此를 借替發行하기로 되엿다
一、名稱 米穀證券(第五十六回)
一、發行價額 額面七千三百萬圓
一、割引 日步六厘四分三
一、發行日 昭和十一年八月卄五日
一、支拂期日 昭和十一年十一月二十五日
一、發行方法 日本銀行引受

特輯
日本人民戰線の胎動
未だ嘗て日本に動きつゝある人民戰線の生みの胎動、其の必然性と、其の未來性的擴散性とに對する剥すな [illegible] 見よ、これぞ我國思想運動に萠芽した [illegible]

大森義太郞 木下半治
窪川鶴次郞 加藤勘十

自由と青年 矢內原忠雄

□統帥權と國際勢力
□武士道の [illegible]
□國體明徵 [illegible]

◇不連續性と思想樣式 杉村廣藏
◇原料封鎖は恐るべきか 有澤廣巳
◇スペイン動乱と國際的投影 益田豐彥
◇ラヂオ文化の根本問題・長谷川如是閑
◇我國に於ける學問の變態 佐藤信衛
◇純文學昂揚のために 高沖陽造
◇新舊官僚の正體 伊藤金次郞
◇寺內陸相と其後の陸軍 三島康夫

中央公論

新秋 九月號

日本名將論(吉秀) 水野廣德
谷崎潤一郞と志賀直哉 勝本淸一郞
廣田首相に與ふ 淸澤洌
宇垣一成論 馬場恒吾
眞崎大將論 亀井貫一郞
◇中國インテリゲンツイア 村上知行
古今死刑綺談 村上常太郞
◇取引所混亂の原因 小汀利得
◇獨墺協定と歐洲政局 堀眞琴
◇街の人物評論(島田俊雄・河原崎長十郞・村山知義・池尾芳藏)
◇新聞戰線異狀あり 山浦貫一
實說 神樂坂の仇討 白石實三
長篇創作
◇獸神 村山知義
◇情欲 尾崎士郞
◇東京ヘオリンピツクが來る迄 鷲田成男
◇商賣東京オリンピツク 高田保
◇陸軍士官學校物語 本村武助

靑春回顧 里見弴
日本文壇の [illegible] 出で [illegible] 白樺 [illegible] の記錄。この [illegible]

◇流行歌の狂燥曲 影山勉
◇日本の庭園藝術 エツナム
◇漫畫思想時評 岡本一平・柳瀨正夢
◇顏の世界人 (ラツール・フランコ)
◇世相赤信號 ◇街の經濟 (キタアールウ)
◇オリンピック規約◇募集原稿に就いて
◇短歌・齋藤茂吉◇詩・三好達治
第三 人形藝談・河竹繁俊

本号定價八十錢

新發表
紅葉山人日記 佐佐木信綱 解註
突如古本市場に現れた紅葉の日記が奇しくも佐佐木氏の得るところとなり、三十餘年の後に生きて發表さる。明治末期に生活した近代文學の父の偉大なる生活は明治末社會史である。

新總監着任途中에 災地窮狀陳情(失敗)

二洞里의住民代表四百餘名이 龜浦驛集合한것을警察이解散

경남 동래군 귀포면 화명리(東萊郡 龜浦面 華明里)와 금곡리(金谷里)주민대표 사백여명은 이십이일아츰 귀포역(龜浦驛)에모혀서신정무총감에게 아래와 가튼 내용의 진정을 하려다가 경관에게 제지되어 해산되엿다 즉 전귀부락의 락동강연안(洛東江沿岸)에잇는 일백이십여정보의토지는여름이면 번번이해사로 반복되는수마에게 여지업시황지화(荒地化)하엿슴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도무지 복구에 힘써주지안흐니 이번기회에 소화팔년이래수해개무에대한 보상(補償)을주든지 그러치안흐면 하천부지(河川敷地)로서 고가로매수하여달나는것이다

私校의內容改善은 別個로考慮

學務局의意嚮

학무국에서는 중등학교내용 개선문제에관하야 중등교육 조사회의 의견을구하고잇는데 이는 관공립학교를 주제로한것으로사립학교에 대하야서는 전긔관공립학교의 개선안결정을 기다려서 별개로고려할터이라한다 사립학교는 그전에현재의 관공립중등학교를 목표로하야 그내용개선 표준안을정하고 각도로하여금 이표준에따라서 점차개선시킬 방침을가지고잇섯는바 그결과 설비 교원등에관하야는 대체로 관공립중등학교에 접근하여왓다 그러나 금후관공립이일층내용충실을 긔하게되면 자연사립학교도 이에추수할수 밧게업슴으로 중등교육조사회의의 결정을 기다려다시 고려하기로된것인데 이로써미아마 전조선중등학교는 모다그충실을긔하게될것이라고한다

少女避하려든 오트빠이顚覆

慘!運轉手는絶命

교통안전데ー인 어제이십이일동대문서관내에는진교통사고(珍交通事故)한건이발생하엿다ー 오전열한시 오십분쯤되여 종로사정목 사십사번지압길에서 칠팔세먹어보이는 귀여운 계집애가 길을건너가랴고할때 전속력으로달어오든『오ー트바이』가이것을 피하기위하야 급히『카ー부』를 하엿기 때문에 『오ー트바이』는 전복 되고 운전수는 아래에 깔려 치명상을 입고 곳 대한병원에 입원하엿스나 얼마되지안어 절명되엿스며 계집애는 피할려다가 재바람에 쓰려저 전지오륙일의 경상을입엇을뿐으로 죽은사람은 신공덕정(新孔德町)백사십일번지 천수명(千壽命)(三)이요 화단하려든 아해는종로사정목 사십일번지 윤일병(尹鎰炳)의 맛딸 정순(貞順)이란 여덟살먹은아해다

撫松縣襲擊共軍에 猛烈한空軍爆擊

討伐隊戰死合計十名으로 住民側死傷六十九名

이십이일 총독부에들어온 보고를보면 수일전에 함남대안인무송현(撫松縣) 몽강현(濛江縣)에 습래하엿든 수천명의 공산군(共產軍)에대하야는 신경(新京)으로부터 폭격긔(爆擊機)수대가 출동하야 지상토벌대와 호응하야 맹렬히 폭격한결과 공산군은상당한 피해를당하고 오지(奧地)로퇴각하엿다는데 토벌대측의피해를보면 전사자가 일본군대세명 경찰관세명 자경단한명이고 만주국에서 전사자한명 부상자두명 행방불명자약간 현경찰관전사자한명 부상자한명 탑거자한명으로 전사는 한계 십명이다 주민측의 피해는 사자 이십록명 부상자 사십삼명인데 이번에 공산군이 습래한 지역의약삽분지이는 전부총화에 타버렷슴으로 주민측의 피해는전긔사상자외에 가옥 농작물 기타의피해가 막대한모양이나 아직조사를 하지못하엿슴으로 자세한것은 알수업다

水亂지난뒤 纛島에傳染病

지난번 수마에 여지업시 유린당한 독섬에 전염병이 발생하엿다
부외독섬가양리(加陽里)백삽십이번지 차재관(車在寬)의처 김문옥(金文玉)(三)은 십칠일부터 누어알키시작하엿는데 이십이일드되여 장질부사로 판명되여 수해지에서 생긴전염병이니 만큼 소관동대문서원의 신경을 예민케하고잇다

遞信分掌局서 災地에醫療班

경성체신분장국(京城遞信分掌局)에서는 이번수재에 피해가심한 관내각지방에 그분장국소속 간이보험건강상담소(簡易保險健康相談所)의 소해의학사(小海醫學士)와 오간호부(吳看護婦)를 파견시켜서 오는 이십오일부터 구월오일까지 각지를 순회하면서 리재민들의 건강진단과 문의에 응할터이라한다 순회할지방은 전주(全州) 진안(鎭安) 삼례(參禮) 단양(丹陽) 제천(堤川) 녕월(寧越) 원주(原州) 횡성(橫城) 양평(楊平) 등 아홉곳으로 그일정은 다음과가튼다한다

◆全州 自八月廿五日 至八月廿七日
◆鎭安 八月廿八日
◆參禮 八月廿九日
◆丹陽 八月三十日
◆堤川 九月一日
◆寧越 九月二日
◆原州 九月三日
◆橫城 九月四日
◆楊平 九月五日

『리야카』傷人

이십이일 오후다섯시 시내 봉래정(蓬萊町)삼정목이백오십번지 아현정(阿峴町)사십번지 목전(牧田)이라는 일본내지인 기물집의배달부로잇는 함주성(咸朱成)(一)이가『리야카ー』에 석유관을 만재하고 경성역에서 봉래정방면으로 향하든중 전긔장소에서 사는 석탄배상 리홍천(李興天) 왕십리정(往十里町)오십삼번지에(七)를치어 하퇴부에 골절에달하는중상을 입혀곳부근 동아병원(東亞病院)에서 수술을 하엿는데 전치약 삼주일을 요할중상이라고한다

연당배를 비롯하야 죽 면화 조등 상당한액수이다 여기에 한응급 구제책으로 도당국에서는 이제부터 십오일동안방을논하주어 인부의 공동휴주고 이어 제지에가운 교량도로사방공사(砂防工事)를 시작하야 이들리재민을 구제하기로되여잇다
그리고 제천군송학리(堤川郡松鶴里)의 피해는 사태로서 들에잇든 십여호의 인가가파뭇치고 큰바위와 나무가산에 미처렬처허 그자리는 황으로 활당한것이엿다

慘憺한槐山水禍 死傷者八十二名!

農作被害만千二百餘町步

交通杜絶로이제야太概判明

【槐山】충북 괴산군내의 수해는 그동안 교통이 두절되여자세한것을 알수업든바 이제 경찰당국의 조사한바에 의하면
死亡四七 負傷一五 流失家屋一五四 全壞一八〇 半壞三一九 其他道路堤防破壞 田畓被害一二三二町步 農作被害 約三五七四八〇圓 罹災民 六一七八名
이상과 가튼바 아족 조사는못나지아닛다 도의 보조금 이천원 괴산군부담 삼천원 합오천원을가지고 구제중이나 이구제책이 영구계속은 못됨으로 그들의 전도가 우려된다한다 그러나 매일 입은폭이 당지하야 체련합으로 분배중이며 괴산각단그절수에 수해의연금을 모집하는중이라한다

牧渡市場에만 浸水百八十戶

【槐山】괴보=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佛頂面牧渡里)에목도강이 범람하야 시내 친수가옥이 일백오십여호에 달하야이재민사백여명은 당지 보통학교에수용되여 면당국에서는 방금 구제에 분망중인데 가옥류실이 삼호 전괴구호 반괴이십여호에 달하엿다 기타자세한것은 교통두절관계로 자세히 몰은다하며 적괴와여히 면당국에 의뢰하야 재민들에게 분배하엿슴으로일반은감사를드리긴다한다

◆佛頂面牧渡里ー一金五十李淑榮 一金五圓安商赫 一金十五圓李漢榮
◆蘇伊漢川市ー一金十圓村上來作 一金參圓 鄭萬永

無錢取食

이십일일오후 열한시경에 시내인사정(仁寺町)구십번지상술집에 시내인의정(仁義町)사번지 김용규(金容圭)(三)등세명이칠원어치술을 무전취식 한후 두명은 도망가고 전긔김용규만은 소관종로서에 검속되엿다

霖雨繼續으로 田穀被害莫甚

【盈德】경북영덕지방에는 근일 전조선을 음습한 림우로인하야 전곡의피해가 막심하다는바 벌서 월여이상을 계속하야 비가나리지안흐면 담천(曇天)임으로 일반농가에서는 크게우려중이라고한다

"平素의訓練업서 不意에禍를보아"

忠北의水害狀況視察하고온 總督府社會課竹內囑託談

이번수해에 강원도(江原道)와함께그피해가 가장심한 충청북도 수해사황을 시찰하고 이십일에 도라온 총독부사회과 죽내촉탁(竹內囑託)은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충북지방은 여간해서 수해가 나지안는곳인데 이번피해선도는 참으로 일측보지못한 참상이다, 더욱일반으로 수해의 경험이업기때문에 어찌할줄을 모르고 피난도하지 못하얏기 때문에 인축의피해는 예상이상으로크다, 북한강(北漢江)류역인 충주(忠州) 단양(丹陽) 괴산(槐山) 감군에는 단하로에 물이넘처 부락 사람들이 훈련이업는데다가 급격한 물쌀이 밀려들어 만흔 사상자를내엿스며 농작물의 피해도

水害義捐金

(八月二十一日正午現在)

금액	성명	주소
四十九錢	金玉順	淸進町一六三
百圓	鄭鶴汝	實藤町三三八
三十圓	吳桂善	南米倉町一五〇
五錢	崔奉業	阿峴町
二錢	馬鐘訓	
十錢	李鳳榮	
十錢	鄭完實	
五十錢	方明善	
十錢	鄭景烈	
十錢	白龍觧	
十錢	金士允	
五十錢	千昌男	
二十錢	裴相俊	
五錢	金萬心	
十錢	金東鎭	
一圓	小笹一雄	
五錢	齊藤彦市	
四十錢	元明熙	海州香丹市
十圓	鄭光國	觀音町一七三
二百圓	尹致昊	堅志町六八
十圓	無名氏	明倫町三丁目
合計	三百五十三圓八十六錢	
日計	三百五十三圓八十六錢	
累計	一千五百五十三圓八十六錢	

全日本中等陸上에 培材、海高도出征

昨廿二日阪神甲子園으로向發

培材高普陸上競技部에서는 來廿六、七兩日間 阪神甲子園에서열리는 第二十二回全日本中等學校陸上競技選手權大會에 出場코저 昨二十二日午後三時 京城驛發急行列車로出發하엿스며 이날海州高普陸上競技部一行五名도 한車로 戰地大阪으로 向하엿는데 一行의面面은 다음과다갓다
◇培材高普=部長 崔仁浩△選手 金焰(主將) 林光洙 印 李鍾敏 李東鎭
◇海州高普=引率者 石川太郞△選手 金炳寅(主將) 金國楨 崔 榮 金昌元

大阪에遠征간培材·海高陸上軍
(前列은海州高普、後列은培材)

太古의靜寂大森林 焚火炎炎高原의밤

先民의꿈자최를다시밟는듯

⑩ 第一夜露營을茂峯에서

茂峯에서 李相昊

오랫만에맛난 나무업는 벌판이라 바다이진흙이라도 그대로한번 뒹굴고십겟거든 밤우에떠으로 떨기떨기 노란꽃,홍신피여허트러진 금루매(金縷梅)가새로 리밝하고난 머리털보담도 더곱게 간롱하게 드리서 피곤한발자욱이 한결더 옮겨지듯안는다。
금루매 꿋바치 두밭을 붓틀고풍채조흔 포태런봉(胞胎連峰)이두눈앞에맛고보니 방금길 이저버린채 풀헤치고 자리잡아 칠십리날씨 부닥긴다리를 맥노코푸러주엇다。
압호로 몃거름안되는곳에 널비 한간도될락말락할 심포(深浦)의맑은물이 구뷔처흐르고잇다 판국이이만하거든 꾸어오드라도 이물한줄기 업슬수업을곳。손바닥을표주박삼아 몃목음으로 목울축이고얼굴마저씻고나니 든기운이다시도라잡아진다。
○……○
여기서부터 무봉(茂峰)까지는 십리길 의갈숲넘어로 지는해를 동갈하야 우리는 무봉에 다다럿다。
자아,로영이다,행장도풀기전에 두서너바랑화두룹이 하늘을 찌르겟다고 기운차게타오른다。압호로 일천삼백미돌노피 꺼칠봉(茂峰)은 저녁안개끼인 숭우에 잔등만 약간내보이고 뒤로야단스럽게 서둘며 내려오는 꺼칠봉의 금분도 우리의 로영지를 감도라더라난다。
벌서 천막이 둥성둥성 드러안는다。쌀씻는다。밥을 짓는다。장작을찍는 독기소리 황혼에 무친상림속 공긔를 은은히흔든다。아르두리 롱나무화두룹이 붉은혀를 널실그리며 어둠사리가 익어갈수록 한층더 처창한 빗츨 띄인다。이럿터럼 저녁밥도 못낫다。
삼림에 둘러싸인 고원의 밤도 점점지터간다。회루몽을 둘러차고안저 내일 행정이야기를 주고밧는 우리들의 얼굴과 얼굴들이 불길에 붉게 반사된 그것 외에는 모도가 어둠이다。어둠이라도 칠흑가튼 어둠이다。멀리 숲가에 잡아매여둔 암말이 네구뷔다섯구뷔 느껴가며우는소리는 송념이 때들에게 놀라워인지? 그소리도 끗나면 적막이다。태고의 적막 그것이다,두리모르게 경건히싸인 어둠과 적막,이것이 천평(天坪)의 밤정경이다。각간히 뭇업는 대삼림의 옷등을 시처서 드려오는 송뢰(松籟)소리도 몸에 소름을돗게할뿐。
○……○
물과풀을따라 유랑의길을 밟다가 알마즌자리에 터를잡고 꿈잡아가죽벗기고 사슴잡아 좋채로구어 등죽열매술을 빚어먹은후 회루불을 어라삽고 둘러안저 백두천왕님에게 감사를올리든 우리선민(先民)들의 아득한 꿈자최를 이자리에서 다시밟는듯하야 밤이깁도록 향용하는 감흥에 눌러 [illegible]지 꿈속인지 분간도 못할삼매경(三昧境)에서 이밤을보내엿다。
○……○
여기만해도 일천사백미돌고산지대로 밤이기퍼갈수록 나계는어느듯 추워지고 겨울초옥처럼 쏘이는 가지고온옷은 다겨입어도 치위는그냥 한갈계를 끄집어내 보니 섬씨사도。천막한쪽구석에 쪼구리고안저 흔들거리는 초불을 의지삼아 내일비들기편에보낼 통신을쓰고나니 벌서시간은 자정이넘엇다。
백두산어란에드러와 첫밤의꿈을 엷은체만체 장막틈으로 새여드러오는 바늘가튼찬바람에 소스라처깨니 팔월십일일오전세시반。몸은 솜처럼 푸러젓스나 치위에 단잠을 청할수 업서 그대로 장막밧글 뛰여나와 그냥다오르고잇는 화루불엽헤 안저몸을녹엿다。
뒷숲에 말우는소리 잣게들리고 마부들의외마디고함 몃차례나며니 동편쪽 의갈나무숲우가 구멍이 숭엄숭엄터지며 뿌우연 배경우에 의갈나무숲이 악으로 솟압호편지에 글빨이나타나듯기 뚜렷 뚜렷드러나기시작하자 붉으스럼한한구름이 와락갓다한참서돌드니 이것저것 할것업시 한거번에 밧치버리고 홍줄그리는 혜님의이마가 의갈숲을 지평선삼아 점잔케내민다。이것이 대삼림복판에서 해님이 거동하는 장엄한 광경이다
(사진은무봉의로영지)

災地동무들에게 純情을부치는두少年

푼푼히모혼돈十圓과五圓

觀水町의 李胤中君

수해지의 아동에게 보내어달라고 푼푼이모혼돈 십원을맥김업시 전부본사에긔탁한갸륵한소년이잇다 물란리가난 중부및남부조선각처의 아동들이 삽시간에 부모를여이고 또는 형제를잃고 며집과가산전부를 물에씻겨내려보내여 학교에가지못함은 물론 먹을것과 입을것이업시 길거리에방황하며고한에 울고잇다는본보보도를본 부내관수정(觀水町) 구십칠번지 경성사범학교 부속보통학교사년생리윤중(李胤中)(一)군은 어린마음에 몹시나동정의마음이발로되야 그가오래동안푼푼히모흔돈십원을 수재지아동들에게 작으나마 보내어 달라고 이십이일오전열한시본사를 차저와서 긔탁하고갓다

東豆川의 金永德君

【東豆川】동두천시내 김시래(金時來)씨의장손영덕(永德)(十)군은약이년전부터 일전 어전식모흔벙어리돈 오원을 지난이십일 예본보지국으로 가지고와서수해로하여 곤란중에잇는 우리와가튼어린동무에게 전하여달라고하엿다

孫、南兩君祝賀

◆축손남량군세게제패【忠南公州邪蘇教靑年會】
◆축손남량군세게제패【山海關滿蒙日報北中總支局】
◆손남량군의 장거를충심으로 축하함【平康元天海】

各處의燈臺를 通過한船舶數

바다가운데 숨어잇는암초(暗礁)는 바다우로떠다니는 선박에대하야 비할때 업는 무서운 존재다 이무서운 존재를 밤낫으로 미리 알려주는것은 이등대(燈臺)로서 수만흔 배를 이등대의 덕택으로 안전히 항행을하게되는다 조선연안에 잇는 갓등대의조사를 보면 최근 한달동안에 갓등대부근을 통과한 선박의 총수는 삼만구백오십척인데 작년이때에 비교하면 삼천팔백척이 더만혓다 배가만히통과한 등대를 보건댄 진해(鎭海)항구에 잇는가덕도등대의 이천구백삼십팔척을 수위로 그다음이 부산(釜山)항구의 목도(牧島)등대이며 셋재로는 어대진(漁大津)항구의 어랑단(漁郞端)등대이엿다

燈臺名	通過船舶數
▲加德島燈臺(鎭海港口)	二,九三八
▲牧島同(釜山港口)	[illegible]
▲漁郞端同(漁大津港口)	[illegible]
▲長鬐岬同(慶北)	[illegible]
▲末島同(群山沖)	[illegible]
▲魚龍島同(全南松島沖)	[illegible]
▲巨文島同(麗水沖)	[illegible]
▲水運島同(龍岩浦沖)	[illegible]
▲城津同(城津港口)	[illegible]
▲荏文津同(荏文津港口)	[illegible]
▲月尾島同(仁川沖)	[illegible]
▲於靑島同(群山沖)	[illegible]

어째서老衰? 六、七十에이元氣

暴君권의精力은絶倫

三十四十이나 五十을 이제넘기만하면벌서 腦力이나 精力이 빨리도 老衰現象을 보하고잇는사람이 非常이만흔것은무슨리유일가
斯界의權威醫學博士森田公平先生은多年여러方面으로 硏究한結果 人體에아리멘드가缺乏하면 早老한다는것을發表하엿다이貴重한아리멘드를가장만히含有하고其他精力素、活力素를豊富히가지고잇는 魚族의王이라고할만한「권ー」은 百尋以上의 深海의暗黑界에살면서大食한마리는 普通악것二百마리를거느린다는暴君으로 其精力絶倫한點은 어떠한動物도어림이업습니다。
이深海의暴君권을 捕獲하야其體內에서 아리멘드、호르몬、뷔타민AD等의 强力精力素를特種의技術로抽出하야 小球에너흔것을「오오권리온」이라고 命名하야發賣하게되엿습니다。
이一粒의 아리멘드及豊富榮養價는實로 鷄卵十五個牛乳三升에相當합니다 따라서 本劑를먹으면 健康의決定的要素뷔타민AD와호르몬과의 綜合的作用이 全身에補給되여서 衰退한 精力、元氣、腦力이 湧出하야 更年期의분은곳蘇生하야六十七十이되여도絶倫한精力은젊은사람에게지지안는元氣로되고또實驗者十五銀行重役佐藤五百槻氏는놀날만한 賦活素라는것을 體驗하야 多數名士여러분들께 推奬하고잇습니다지금社會의第一線에活躍하고잇는名士間에는愛飮을만들고 愛用하야 점점旺盛히活躍하고잇습니다
從來此種藥物에 强壯劑、호르몬劑 여러가지잇스나 一時的興奮은 술을마신거와가튼 結果로곳엽서저 나종에는 도리혀疲勞하지만오오권리온은一時的刺戟劑가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身體의 組織細胞의 抵抗力을 旺盛케하며 健康의 增進機能의亢進을 完全케하며 精力은 [illegible]하야 顔色까지도 젊어저서 全身으로强健化함으로 機能衰退者中年後視力이衰退한분 虛弱體質神經衰弱 히스테리 結核에罹病하는분 病後衰弱한분들에게는機能을가지고推奬합니다 幾多의藥劑에迷惑하는분 다시一步더나가서 本劑를愛用하야 現代의惡苦한社會生活의一線에絶倫한精力을가지고活躍하야 大成功하시기를바랍니다。
『오오권리온』 四十五粒入 一圓五十錢、百粒入三圓、三百粒入八圓五十錢 五百粒入(德用) 十三圓
代金은 郵便爲替로 送金하신시요(送料十錢)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室町三ノ三 日本水產理研 東京營業所 振替東京八四〇三一番 電話日本橋(24)一〇五九番
說明書請求 次第進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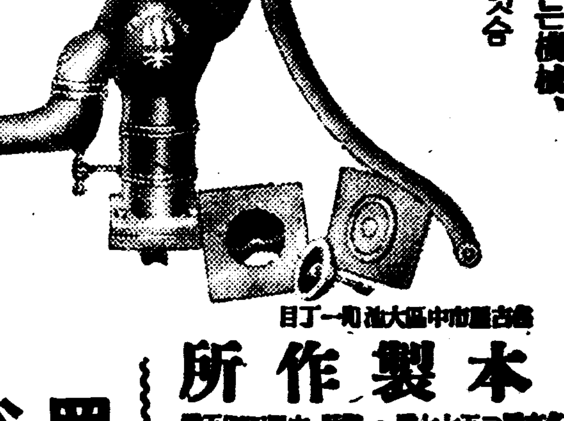
히트輕油發動機

燃料節約·取扱簡單
出馬力强大·堅牢無比
鮮滿配給元 土肥發動機釜山出張所
釜山府大倉町一丁目 電話長一二六九番
農林省御推薦機 シリンダー交換式
二馬力부터十二馬力까지
在庫豊富 型錄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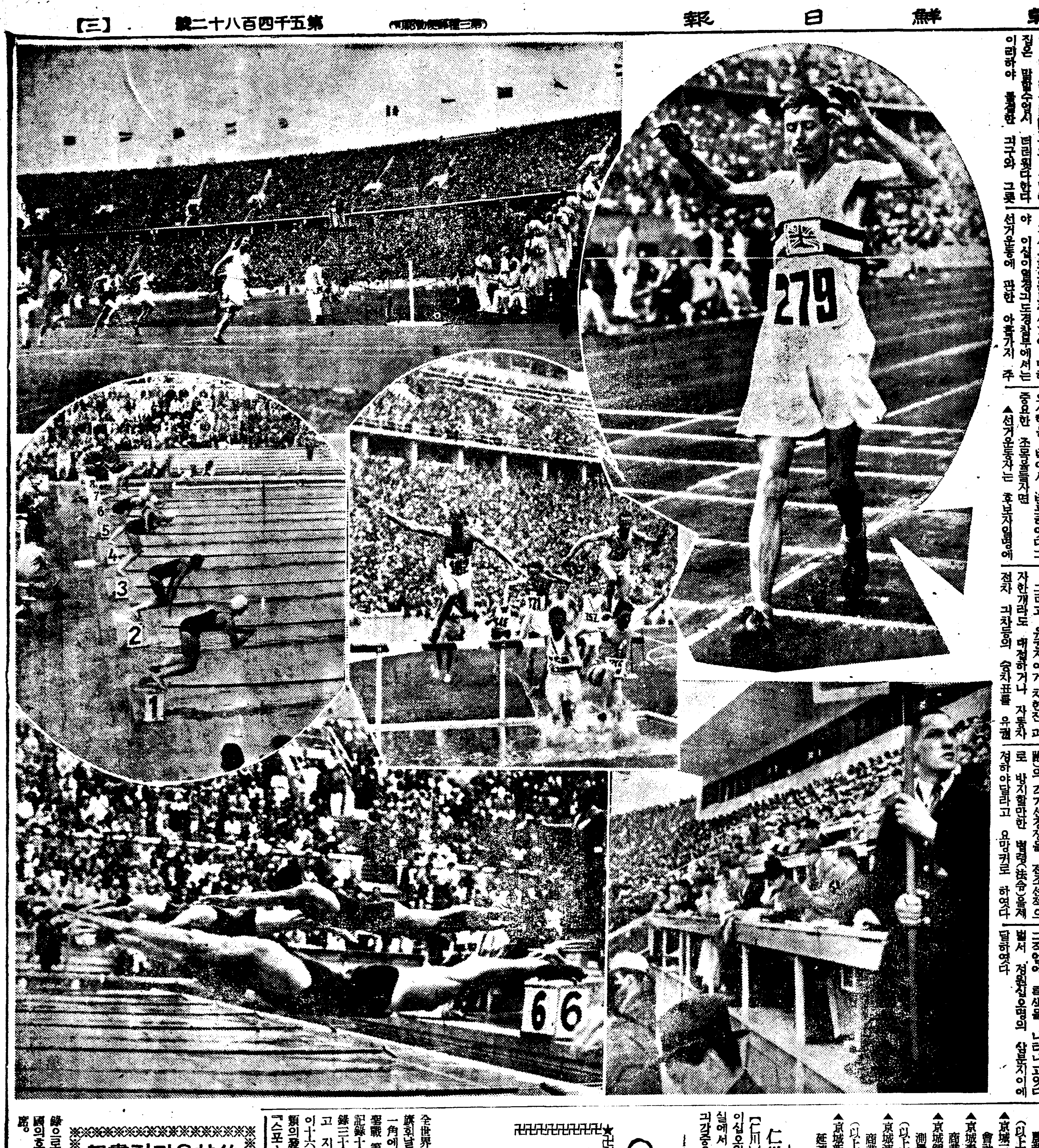
ラフノン香油

川本式ポンプ

TRADE MARK
好評! 滿天下의「ポンプ」界를 斷然리ー드하다
全國到處에信用잇는機械、金物、ポンプ店에잇슴
實用新案216835號 新案バルブ付



注意
今番特許局의査定에依하야(登錄商標第二六三一九五號)과가튼「川本式」이라는字句도商標로公告되엿고以來弊所製品에는全部「川本式」이라고明記하엿습니다
從來製作의 印ポンプ는製作을廢止하엿습니다
眞正한川本式「ポンプ」는 印外에는업습니다
川本製作所 名古屋市中區大池町一丁目 電話中四四五番·二五七七番
特約店 岡谷銅物部



伯林올림픽畫報

左列上으로부터 女子百米決勝(米國의스테펜스孃이 테-프를 끈코 一着) 女子平泳二百米決勝스타-트光景, 男子三千米障碍物競走, 男子自由型百米決勝스타-트光景 右列上으로부터 四時三十分十四秒의世界最高記錄으로 五萬米競步에優勝한 英國의호이트룩選手

京城版

外潔內醜의 各食堂 厨房設備에 猛團束

各種傳染病이流行하고잇는이때에

鍾路署管內서着着調査

요사이 서내에는적리(赤痢)와장질부사(腸窒扶斯)등의 전염병이대단히창궐하고잇는이때에 일반대중들이 날마다드나드는 시내갈보리집 음식점 카페 식당찻집등이 청결하고 불결한데따라그영향이큰것을 생각하야 방금시내종로서(鍾路署) 위생계에서는 매일 엄중한조사를하고잇는중인데 외견(外見)은깨끗하고 주방이 더러운곳을 조사하고잇는중 화신식당(和信食堂) 「엔젤」등 비교적 깨끗하다는 곳도 그주방(廚房)안이 상당히 불결하고한청식당(韓靑食堂)은 특히불결하엿스며 리문(里門)등의 설렁탕집은 말할수업시 더럽다한다 이러하야 불결한 기구와 그릇은 곳 깨끗이하게하고 설비가 이 사먹는음식점내지 찻집가운데불완전한곳은 그개선을 명령하고 그방과 변소가서로린접되여잇다는데 그중도저히 묵과할수업는곳은 그 주인을 경찰에호출하야 엄중 처분하고잇다 그 외에도 적지안히 여기대한 개선도하게하리라는데 아직도계속하야 엄중조사한후 불결한곳은 리고 이와가티 일반 시민대중 용서업시 처벌하리라고한다

選擧違反團束 規定을發表

京畿道警察部에서

경성부회의원보충선거에 대하야 이십이일경긔도경찰부에서는 의사항을 발표하엿다 그중요한 조목을들자면 선거운동에 관한 아홉가지 주의사항을 발표하엿다 그중요한 조목을들자면 ▲선거운동자는 후보자일명에 대하야 이십인이내로할것 ▲선거운동자의 음식물은한끼에 오십전이내 하로에 일원오십전이내로한정해할것 ▲호별방문(戶別訪問)은 오전 일곱시로부터 오후 일곱시까지로할것 ▲비행긔로나 거리에서 선거삐라를 뿌리지말것 ▲공인(公認)이라는 문자는사용하지말것 ▲유권자들에게 문서를 배포하야 『아모에게 투표하여주시오』하는등으로 투표를 부탁하는것과 회로써 할때에부탁한다든가 또는전화로 부탁하는것은 모다처벌하게된다 그리고 유권자에게 자한잔 과자한개라도 대접하거나 자동차 전차 긔차등의 승차표를 주거나 자에게 제공하드라도 선거규측에 위반되여 처벌을당하게된다 그밧게 당선된뒤라도 축하연(祝賀宴)을 베풀고 유권자에게 대접하여도 안되며 남의 선거연설가튼데에가서 야지를 하거나 그밧게여러가지 수단으로방해하는것도 모다 처벌을 당하게된다한다

日曜講話

◇覺皇寺 午前十一時 朴漢永 氏
善隣의求法
◇南大門教會 午前十一時 金英珠 氏
教會發展策
◇鼎山教會 午前十一時 金■■ 氏
未定
午後八時 崔■■ 氏
七年間■■의■■
◇中央教會 午前十一時 梁■■ 氏
나를따르라
午後八時半
◇■松教會 午前十一時 金■■ 氏
未定
生의기쁨
午後八時 崔■■ 氏
邁進
◇■洞教會 午前十一時 洪■■ 氏
生命의價值 金■■ 氏
夕 ■間
現實에■■하자 金■■ 氏
◇■洞第一■■■ 午前十一時 ■■■ 氏
聖徒의마라손競走
午後八時 朴■元 氏
人生의가장必要한것
◇石■教會 午前十一時 申四■ 氏
生前의■■
午後八時 金五峰 氏
예수의것부어라

沼岸船舶業者 競爭防止要望

【仁川】 년이억원 이상의 무역품을 할드하는 인천의 발전과한가지 교통이 번다하야 연해(沿海)의 선객쟁탈전을 연출하야 맛침내 충청도로부터 인천까지의선임이 일원이든것이 인천긔선(仁川汽船)과 해양사(海洋社)의 경쟁으로 인하야 이십전으로 인하되고 긔념품까지 제공하는 실로 희생적경쟁을하야 언어도단의 상태이라 이에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이십일일의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대책을강구하든끗헤 마츰내총독부에대하야 연안항로(沿岸航路)의 각긔선경쟁을 전조선적으로 방지할만한 법령(法令)을제정하야달라고 요망키로 하엿다

電報件數激增

지나칠월 한달동안에 경성우편국에서 취급한전보(電報)건수는 합계 팔십칠만륙천사백륙십 세 벌이엿는데 하로에평균 이만팔천이백팔십일건이나 취급한 세음이다 작년칠월에비하야 약일할가량이나 증가하엿다

府議補選에 벌서十名候補

二十二日正午現在

오는 구월이십일에 보충선거할경성부회의원 립후보자(立候補者)는이십이일 정오현재로열명에달하엿는데 영등포(永登浦)선거분회관내에 다섯명 동부(東部)선거분회관내에 한명 중부(中部)에 두명 서부(西部)에 한명이다 서부립후보자는 연희전문학교 사감(延專舍監)송치명(宋致明)씨로 그직업에 특색을 나타내고잇다 벌서 정원십오명의 삼분지이에 달하엿다

▲京城新吉町二三 會社員 鈴木 文助(五二)
▲京城黑石町五番地의三六 農家業 木下 榮(五〇)
▲京城道林町九〇 會社員 李 斗 用(三七)
▲京城永登浦町五七〇 會社員 金 泰 遠(三五)
▲京城上道町一八四 農業 松浦 ■治郎(五一)
(以上五名은永登浦分會管內)
▲京城三坂通一四四 會社員 藤村 忠助(六二)
▲京城吉野町二ノ九〇ノ一〇 商業 李 相 殷(五三)
▲京城鍾路五ノ七五 測量士 姜 永 晧(三七)
(以上은 中部管內)
▲京城清進町一〇 商業 李 晶 穆(三■)
(以上은 西部管內)
▲京城新村町一〇一 延禧專門學校舍監 宋 致 明(三七)

牛에도流行感冒

江華에三百頭呻吟中

강화군(江華郡)에서는 이달칠일부터 소(牛)의 류행감긔가 발생하야 퍼저서 이십일현재까지에 전군내에 삼백머리가 걸려서 알코잇다 신열은 사십도까지 나고잇는데 아즉그병으로 죽은것은업스나 처음 발생한 곳은 해안지대에서 발생하야 점점 산간(山間)지대로 퍼지고잇는데 경긔도관내에서는 현재 섬에서산간까지 퍼지고잇다 경긔도의생과(衛生課)에서는 수일전에 판본수의(■本獸醫)를 파견하야 실지조사를 시키고 방금방지에 노력하는중이다

漂流物橫領犯 徹底團束指令

하촌(下村)경기도 경찰부장은 이십일에 도내각경찰 서장에게 이번수재에 떠나려간 물건을 엄밀히 취체하라고 지령하엿다 지난번 홍수로 한강(漢江)기타 하천(河川)에서 흘러나려간 재목기타 물건을 습득하야 경찰서에 습득하엿다는 신고를하지안코 그냥횡령해버리는 사람이 만흘모양이라한다 이런 행위는 해마다 홍수가날때마다 가외습관으로 되여서 한강하류연안에 사는 민중은아모 범죄가되지안는양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나 당연히 표류물횡령죄(漂流物橫領罪)를구성하는것이므로 철저히 취체하는동시에 발각하는대로 검거하라고 지령하엿다

鰒魚에中毒

이십일저녁 시내 앵정정(櫻井町)일정목이십구번지 홍언섭(洪殷燮)(三〇)은 거리잇는 일본내지인 생선집에서 복어의 내장(內臟)을 어더다가 그의 아들 해성(海成)(■)이하고 함께먹엇든바 얼마되지안하서 중독이되여 근방산구의원(山口醫院)에입원하야 응급수당을 하엿스나 해성이는 죽고마럿다 해성이도 중독은 되엿스나 생명에는 별관계업스리라고한다 그런데 그들은모다부자간으로 점괴주소에서 할수업는생활을계속하여오든터로 그날저녁도 하도배가 고픔으로 남이내버린북어를 어더서먹다가 그만 전긔와가튼 질변을 당하엿다한다 현장은 아버지를찻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릴뿐이엿다

仁川商議總會

【仁川】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오는 이십오일 오후네시부터 동회의 실에서 의원 총회를개최하고좌긔 각중요문제를 토의키로 되여라는데 그중에도 재미로운제에 관한 문제는 일반생산업자의 사활문제가 되우중대한것임으로 가장 큰주목을 잇을고잇다는데로 외사항은 다음과가다한다

一、■■■■■에關한件
二、沿岸航路統制에關한件
三、精米工業統制에關한件
四、■■■■及■■■■의件

四十年間의記錄變遷 各種目實力向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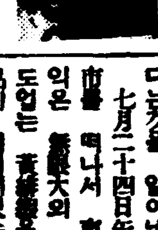
마라손은卄九分卅秒八을短縮

人類體育發達의象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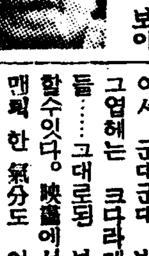
全世界의 興奮과 感激을 五輪旗휘날리는 伯林『그룬네왈드』의 一角에 凝集하야 十六日동안의 聖戰 第十一回올림픽大會는 世界記錄十一、올림픽記錄三十二라는 큰收穫을 남기고 지난十六日에 終了를하엿는데 이十六日間에 全民族을代表하야 人類의 發展向上을 象徵하는 世界『스포-츠』戰士들의 피와땀으로서 어든 人類의 肉體的發達의 자최를 더듬어볼때 멀리一八九六年『아테네』에서열린第一回올림픽大會의 옛날로부터 이번伯林大會에 이르기까지 四十年間에잇서 或은陸上으로 或은水上으로 人類의 스피-드와 跳躍力또는 持久力은 果然얼마마한 進步의길을 밟엇든가? 이問題는 가장우리에게 興味를주고잇다

回顧컨대 第一回때와 第十一回兩大會의 記錄을 比較하야 보면 百米競走에는十二秒에 對하야 十秒三(오웬스君)卽 一秒七의스피-드업을 한셈이다 그리고 二百米에는 二十二秒二에 對하야 二〇秒七(오웬스君)로 一秒五 一千五百米에는 『라브룩』選手가 四十五秒를 短縮하야 中距離走法의 向上을 말하고잇스며 長距離의 五千米와 一萬米에 이르러서는 走法보다도 體力의 關係가잇서 큰進步는 볼수업스나 五千米에 二十四秒六 一萬米에 一分五秒四의『스피-드업』에 못지고잇다 우리朝鮮의자랑 ■人 孫基禎選手가優勝한올림픽競技의花形마라손에서는 往年의아테네大會■士가作成한 記錄에 比較하면 實로二十九分三○秒八을短縮하엿고 距離를測定하면 約二哩의 差를보이고잇다 其外에도技術을要하는障碍競走는 合理的走法研究의 結果로 百十米에는 三秒五 四百米에는勿驚 五秒六이라는 큰進步를 보이엇다 三段跳에서는 十三米七一의『아데네』覇者에對하야 十六米를 跳躍하야 二米二九、走高跳에는『롤오버』의 偉力을 보이여『죤손』(米國)選手가 二米○三의 高位를 征服하야 腰部動作의 發達狀態를 立證하엿다 走幅跳에잇서서도 米國黑人『오웬스』選手가 八米〇六의 驚異的跳躍에成功하야 四十年前選手보다 一米七一의進步를보이엇스며 棒高跳도 技術的改良의 困難을 克服하야 一米〇五의 頂點에 갓가운差를 天空에 그리엇다

그리고 가장 顯著한發展을본것은人類의投擲力이다 投圓盤은二一米三三、投槍은二十七米九四、投砲丸、投鐵槌는모다約五米式伸長을보이여 脚、腰、肩의힘을 가장合理的調和에統一하야神技에갓가운境地에까지드러간것이다 女子競技는歷史가아직도짧은 關係로볼만한進步는업스나 投圓盤에獨逸의『마우엘·마이야』孃이四七米六三을던저서 第九回암스텔담大會의女王波蘭의코노바카孃의記錄을八米남짓하게 떠러트리고超人的記錄을지엇다



【寫眞上은 孫基禎君、下는 오웬스君】



【寫眞上은 라브룩君、下는 마우엘마이야孃】

匈牙利遠征記

【2】 延專蹴球部主將 廉殷鉉

어제저녁에는『윈』의 市街를 돈도록도라다니며 그곳의特異한 情緖를 맛볼수잇섯다『윈』에서만볼수잇는 『네온싸인』은 勿論이요 市街에는 밝은電燈를볼수업다 電氣料가 비싼關係도잇겟스나 그속에서『윈』에對한 情味를어들수잇섯다 白樺의鞭으로 하얀點백인 소떼(牛群)를 몰고가는 맨발버슨 露西亞女子! 西伯利亞車窓에서 어든이 한幅의 그림과『모스코바』에서 부산든 일홈모를銅像을본것과 또한 깨끗지못한色옷입은 露西亞女子들을본 그以後에 처음맛보는 幻影속에서 나타나는『윈』을 볼수가 잇섯다 누구는말하기를『부다페스트』云云하나 아즉못본 巴里나倫敦보다 그리고 世界어느곳보다도『모스코바』以後의 그뒤를따려주는『윈』을 이즐수업다『윈』! 잠는밤 그리고 制限된時間안에 엇는散步이나마!

『윈』이 나에게준 興奮과 感激노는 刺戟은잇지못할 그것이 中世紀의王都! 神聖羅馬帝國의 本據! 검우죽죽한 蒼空을찌를듯한 建築物들은 얼마마한刺戟을 그建物과 그속에서자라나는 宗教속에서 엇고자하엿다는것을 推測할수잇다『다뉴브』河는『윈』한쪽에흘러 湖水와가튼 조용하고도 맑은물이다『다뉴브』河『엘베』河에 니저『라인』河가 엄마람 各民族의 呼吸과 風俗와 衣服과 歌謠와言語를 變化식히고 얼마나 獨特한美를 나어주엇나? 참偉大하다! 도리켜 이江들이 萬■■■■에잇서서다만 ■■■■가 거기서다볼수가 ■■■에 對하야끼친것이 얼마나 하다는것을 알어낼수잇다

七月二十四日午後四時十分 윈市를 떠나서 車窓에 눈러케익은 ■■大의 ■도업고 기뻐도업는 ■■■ ■■■이 ■點이 허여저잇는 ■女 ■子들이 석자(三尺)가량되는 낫으로 비여거둔보리밧이 ■■에는 큰■家집이된다 ■■우에서天使스럽게노는 어린아이들은 貪하지나가는 ■■는 汽車를■하야손짓을한다 여기서나는 ■■■저아름다운 伊太利■■■미케란제로의데쌍을 생각할수잇섯다 이날 午後五時二十分에「혜기·쉘흔」에 到着하니 이곳은 墺太利와 匈牙利國境이다 歐羅巴의 國境그리고 境界線은 自然國境이아닌만큼 鴨綠江을 건느는것가튼 感을 주지안는다

匈牙利의 보리밧은 ■다 익어서 군대군대 비밧도 보인다 그엽헤는 크다라케 싼 草家집들……그대로된 보리倉庫라고도 할수잇다。映畵에서 볼수잇는듯로 맨■ 한 氣分도 엇지 못하엿다 車中에서 匈牙利人을 만나 서루른 英語、獨逸語로 엄마큼의 意思를 交換하엿는데 그는 匈牙利의 文學者이엿다。匈牙利에 對한 文學을 아느냐 한다 그리고 나에게 匈牙利의 詩를 만히 들려주엇다 보리밧 뿌리와 옹옥한 그릇가튼 地勢를 가진 十世紀 蒙古族遊牧地가 되엿든 이 옹옥한 수렁(沼地)속에서 近一千餘年이나 자라나온詩이다 그 詩는 맛치도 朝鮮의 草家三間 집을 짓고 兩親父母 모셔다가 千年萬年 살고지고……와가튼 東洋的 情緖와 血統을 가진「마-야」族의 검은머리 검은눈 좀 다른點도 잇소나 못 東洋族의 詩다。(續)

姜、柳孃健鬪

對全日本女子卓球

◇…第一日의戰績

全日本女子卓球團招聘對抗戰第一日은 二十二日午後一時부터 府民館中講堂에서 擧行한바 昨報以後의戰績은다음과가티 高女、實業聯合軍은 始終敗北되엿고 對全京城軍戰은 同德女高의姜彰玉柳順男兩孃의健鬪로 第四라운드에드러가 結局惜敗하엿다 그리고今二十三日午前十時에는 女子高普聯合軍과 同午後一時부터는 全京城軍의 第二回戰을行할터이라고한다

【全日本軍】勝 【聯合軍】
○戶 邊 3…2 橫 山×
○保 原 3…1 遠 山×
○西 山 3…0 車德婵×
○勝 山 3…0 小 出×
○眞 田 3…1 三 島×
○戶 邊 3…0 門 田×

【全日本軍】 【全京城軍】
【第一라운드】
保 原(主將)3…1 李福永(女高)
(京都高女出)
西 山 1…3 姜彰玉(同德)
(京都女子高專)
勝 山 3…1 許元順(同德)
(群山高女出)
眞 田 3…1 任昌淳(淑明)
(堺高女研究科)
戶 邊 0…3 柳順男(同德)
(東京共立業專)
【第二라운드】
×保 原 0…3 姜彰玉○
×勝 山 0…3 柳順男○
【第三라운드】
○眞 田 3…1 姜彰玉×
【第四라운드】
○眞 田 3…0 柳順男×

◇◇今日의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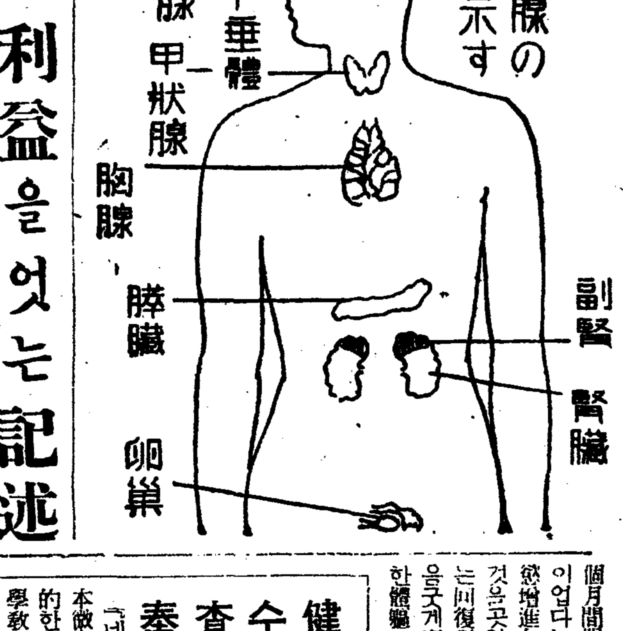
▲卓球=全日本女子卓球團招聘第二日 午前十時 對全京城女高普聯合軍戰 午後一時 對全京城軍第二回戰 府民館中講堂(入場料[illegible]十錢)
▲陸上=朝鮮對抗戰 午後一時 京城運動場

貧血早老虛弱을醫하며 肺患、胃腸病도快方

抗病力をつくる天理に適った療法

一時的對症的療法은 病狀의末節에 拘泥하야 아모리가도참된治療를할수업다—

植物『호루몬』의應用은이에反하야基本的體力的療法이다



읽고利益을엇는記述

毒物 이든지 腐敗한것을 먹으면 嘔吐泄瀉를 이르키여서 體外에 排出합니다 感氣 扶斯에걸리면 高熱이나며 病菌을 征服하려고합니다 百人中一白人까지는 結核菌에한번은 걸리는 거신데 體力만 充實하다고하면 大體는自然히 治癒될수잇습니다 이것이人間의 體驅에 元來부터 잇는治療能力이라 하는거신데 如何한境遇에라도 藥이直接으로 病을治療하는거슨 아닙니다。藥은自然히 備付하야잇는 治能力을動員하는데지내지못합니다。

그런 데世人은藥에對하야 잘못된생각을가지고 解熱藥으로써 結核가 治療되며 消化劑라든지 重曹劑로써 胃腸이튼튼하야지며 二三의營養分으로된 營養劑라고하는거슬 가지고 衰弱 疲憊한 體驅가忽然히 健壯한體驅로 되는것가치생각하고잇습니다。

이것들의藥物은 一時的은下熱한다든지 氣分이조와진데든가食慾이잇다든가多少의效果은 이슬망정服用하기를中止한다고하면 곳 用하지안은그때에 逆戾할거슨 明白한일이옵니다。

『호루몬』劑가만히나 利用된다든가內服으로써 一時『호루몬』欠乏을補給한다고해도 效果은永續하는 것이시안이고 오히려 無理하게 衰弱된細胞를 强制하야 活動케하는 것으로써 後日에가서오히려 衰弱을增加케하는 意外에의 障害를 이르킬 念慮가잇습니다。『호루몬』은全身的健康을支配하고잇는것이니까 여러種類가잇는 『호루몬』의全部를그리고도『호루몬』을 分泌하는 器官으로부터 更生케하며 또는 活動케한다고하면 確實히衰弱體를 甦生케할수도잇고여러가지의 病患도 其病原으로부터 治療할수가잇습니다。

如何 한病이라도結核이거나 胃腸病이거나貧血이거나 早期老衰이거나 結局은抗病力을 體內에充實케하야서 治療할수밧게업쓰니까 全身에『호루몬』을充實케하야 抗病力을增長케하며 病原을擊退케하는藥物이라면 全혀病弱에煩惱하는者의참된福音이라고 아니할수업슴니다 이와가튼藥物을 心的으로求하는 사람에게는 꼭植物『호루몬』의服用을試驗하야보십시오 조흘듯생각합니다。植物『호루몬』는곳『호루몬』의原素라고보고잇는 新發見物로서效果는 動物實驗이라든가臨床試驗으로서 臺實히證明되고잇쓰므로써 一般의藥物과가튼博士의 證明가튼것은不必要한것입니다。

永續 的效果、基本的體力을만드는것이 特長이나 一個月이나二個月間服用한다고하드래도 反應이업다는藥과는 달니하야서 食慾增進血色良化、便通도잘되는것을곳알수잇는것이니까 服用者는回復의希望을어들수잇스며 마음것게病을治療할수잇스며 虛弱한體質도强壯하게할수가잇습니다

健康狀態를알수잇는尿의檢査를無料로써奉仕합니다

『네오네오기-』를發表한日本微生物研究所는營利만을目的한것이안이고 現在多數한大學教授의指導下에 眞摯한 研究에從事하고잇는 研究所입니다

研究所에서는國民健康增進運動의한나로서 一般의檢尿에應하고잇는바特히『네오네오기-』服用者에게는無料로서奉仕하고잇습니다 特殊의精密한檢査法임으로서利用하야주십시요『一瓶에一枚의申込書를添付하엿습니다』

妊娠의有無檢定에도應합니다

『但妊娠檢定에限하야有料』

◇購入方法◇

네오네오기-의價格은三百六十個入約一個月分金一圓五十錢徵用은金三圓九圓의二種이나 全國藥店에잇스나近者에圓一名稱인 밋슬스러운模倣品도잇스니까購入하실때注意하야주시요

直接申込은藥書를同封하야東京小石川關口大瀧一〇六番地日本微生物研究所에내면費用와荷造送料는 代金引換으로써送料는研究所負擔으로急送합니다但海外와植民地는 振替東京五六八二二番에 拂込할것。(NN3D1-60)

植物性ホルモン活用

ネオネオギー

燃料對策

▲問題의發端과進展 (二)……張元俊

[illegible]한바와가티 目下 日本의 燃料問題가 [illegible]의하나로 重大化하게되는 根據가 어데잇는고하면 그것은 現在日本의燃料 需給關係가 圓滑을 缺하야 그需要보다 供給이 얼거나不足을 生하기때문이다 이제 그 需給狀態를 그의 大宗인石炭과 石油에잇서서보면 大體다음과갓다

一、石炭은日本內地의埋藏量이 百七十億噸、年產高가 五千五百萬噸、朝鮮의 埋藏量이 四億一千萬噸、年產高가 約百萬噸滿洲의 埋藏量이 四十八億噸、年產高가 一千萬噸、其他 臺灣樺太의 年產高가 三百萬噸(以上昭和九年統計)으로 商工省當局者의 談에 依하면 右記埋藏量과年產高로도 日本需要에 아무 不足이업슬뿐만아니라 그만하면 一朝有事時에라도 不自由한 點이업스리라고하며 그埋藏量에잇서서는 今後의 調査에 期待 되는바가 만흠으로 問題될것이업다고한다

二、石油는 昭和九年統計에 依하면 揮發油、燈油、輕油、機械油及 重油等各種油의 需要三百五十萬噸에 對하야 日本內地、臺灣產을 合하야 年產이 僅三十萬噸弱으로 需要의 九%弱에 不過하는 狀態이며 그他 海外油田으로서 南洋보루네오油田、滿洲石油會社의油田開發、北樺太의 利權油田等이잇서서 政府의協助에 依하야 年產十四、五萬噸을 生產하는 微微한狀態인데 그中에서 重要한 北樺太의 利權油田은 明年末으로써 契約이滿了됨으로 既得海外油田도 보잘것이업게되다 그런데 右記需要高에는 軍用油가 加算되지안핫는데 이것을 合計하면總需要가 六百萬噸臺에 達하리라고하니 그 供給은 需要의 七%에不過하야 그외 不足量은 北米칼리포니아를 비롯하야보르네오、蘇聯、其他로 부터 輸入하는 狀態이다 그러나 이것은 平時에잇서서의需給關係를 말한데不過하야 一朝에 戰爭이라도 勃發된다고하면 그需要가 激增될것은 勿論이오 그國際關係에잇서서 供給이停止아니된다고 누가保證할수잇겟느냐하는것이다

要컨대 日本의燃料問題[illegible]는 石油問題[illegible]라고도 바꿔서 말할수잇는것으로 그것은 前述한바와가티 政府當局이 石油代用物의 使用에 重要하고잇는것으로보아서 明瞭하엿이다 그리고 石油問題가 그와가티 重要視되는 理由는 主로 軍事的見地에서 出發되는 問題인데 現代의軍備는 가장 尖銳한 科學을應用한것이만큼 그가消費하는 燃料에잇서서도 勿論從來의것과달으며 이것을 能率的으로 運用하는데 잇서서도 石油는 不可缺의것이라고한다 某國의一武官이「今日의戰爭은「石油戰」이라고 말한것과가티 現代의 武器는石油가아니면 이것을 運用할수업는것이 事實이다 첫재로 海軍軍備에잇서서 軍艦의燃料를 從來는 石炭만으로 足하든것이石油를 混用하지안흐면 안되게되엿스며 特히 潛水艦과 如함은 全然 石油에依하게되엇다 그리고 더욱히 陸空軍의 戰車、自動車、飛行機等에잇서서 重、輕油가 大量으로 需要됨은 言할것도 업지마는바이다 이러케보면 國內에 油源이缺乏한 日本에서 燃料問題에 對하야 一大關心을가지는것도 不可避의 事實이것이다

그래서 目下日本에서는 國內에 油源이缺乏함으로 이것을主로 石油의 代用物製造에 依하야 解決을보려는것인데그것은 國策案에도 表示된바와가티 石炭의液化工業勃興 木炭、甘蔗、馬鈴薯、甘藷、高粱等의 澱粉을原料로하는 알콜製造의 工業化等으로 前記와가튼 莫大한 供給不足을 代用燃料에 依하야 解決하는데 잇서서는 첫재로 그原料資源이 問題될것이며 둘재로는此等工業化의價値가 問題될것이다 (續)

産業

鰛加工船許可 一部에서要望

小規模의加工業者와漁業者의 打擊甚大로推移注目

朝鮮의 鰛漁業에잇서서는 所謂冲工場 鰛工船을 陸上工場保護의立場에서 昭和九年以降 禁止하고잇든바 朝鮮의 東海岸의 漁獲現狀 特히 今年의 鰛回游狀況으로 鰛工船은 關係方面으로부터 要求되게되어 그推移는 注目되다 北米에서는 鰛加工製造는 거이 工船의손으로 行하고잇는데 그條件은 東海岸과 類似하야 朝鮮의 東岸의 巾着網漁獲은 通例 三十浬乃至四十浬에서 盛漁되는바 이漁獲을 陸上工場에 運搬함에는 七、八時間을 要하야 此間 腐敗하야 밀油 共히 劣質을 生產하게되는다 特히 今年과如함은 鰛은 百浬冲을 無數히 回游함에 不拘하고 陸上에의 運搬에 一日을 要함으로 모처럼의 漁利도 空然히 看過하는狀況이다 이러한 情勢로 朝鮮遠洋漁業開發을爲하야 어떤 制限을 付하야서라도 鰛工船을 認可할것이라고 主張되고잇다 그런데九年까지는 笠戶丸一隻이 工船으로 活躍하고잇섯다

그러나 鰛加工船이 許可된다면 그것이 設使 어떤 制限을한다할지라도 陸上의 加工業은 打擊을바들것인바 大規模의 業者는 加工船으로 轉換 또는 兼營할수잇서 그打擊을 免할길이 잇스되 小規模의 加工業者의 打擊이야 말로 甚大할것이다 그리고 陸上加工業의 打擊에따라 從來漁獲物을 沿岸加工業者들에게도 影響이 잇슬것인바 여긔에잇서서도 巾着網은 殆半이 大規模加工業者가 兼用하고잇슴으로 우에서말한바와가티 加工船으로 轉換乃至兼營하야 打擊을 輕減할수잇스나 群小漁業者 特히 朝鮮人刺網業者들이밧는 打擊은 深刻한바가잇서 그들의生途가 憂慮된다고한다

種緬羊輸入은 四個年으로中止

緬羊增殖計畫內容

朝鮮의 緬羊增殖計畫은 既報와如히 內外의 情勢에鑑하야 昭和十二年度以降 더욱 擴充하기로 되엇는바 其計畫은 大體如左하다

一、昭和十二年度 即 計畫創始의 昭和九年度보터 十五個年間에 緬羊飼育數를 五十萬頭에 達케함

二、輸入緬羊은 十二年度以降三個年間 每年八千頭式 合計四萬二千頭를 輸入함

三、輸入緬羊은 六個年間 種羊으로使用함

四、輸入緬羊은 十二年度以降四個年으로서 그만두고 朝鮮內 豫託으로 增殖을 圖함

朝鮮產羊毛打診

이러한欠點이잇다고 【陸軍千住工廠에서判定】

朝鮮產羊毛는 今年產二萬키로가 豫想되고 今後累年十割增이 期待되고잇는데 이羊毛品質에對하야 陸軍千住工廠에서 比較調査한結果 다음과가튼 缺點이잇다

一、纖維의 强力性에 缺點이잇다 即 朝鮮產毛는 普通코리데일의 五十四番手平均에 比하야 五十八乃至六十番手이고 部分的으로 弱한데 飼料에 關係가잇다

一、朝鮮產은 運動不足으로 纖色하야 色澤이 缺乏하다

一、羊毛의 長은 通例三吋이데 朝鮮產毛는 二吋半以下로 製織上 缺陷이잇다

一、砂 其他夾雜物이 잇슴으로 東北의 緬羊의步留五十五乃至六〇%에 比하야 朝鮮은 五〇%以下이다

一、其他 處理에잇서 缺點이만타

右調査에鑑하야 今後飼育上管理와 處理에 特히 留意하기로되엇다한다

莞島海草販賣 空前의記錄

七萬七千餘圓 (八月十一日現在의數字)

【莞島】全南莞島의 特產으로有名한 乾海苔는 昭和十年度販賣高三百七十五萬圓을 突破하얏다함은 累報한바어이와 莞島는乾海苔뿐만이안니라 海草로도 有名하야 每年七、八、九三個月은 海藻類生產이 旺盛하다 去八月十一日全羅南道漁業組合聯合會莞島出張所에서 入札販賣한 海藻總斤數는 七萬七千百八十七斤으로 販賣金額이 四萬八千三百二十三圓十二錢이라는 空前의 多額에 達하엿다 그런데 時勢를보면 眞布(가사라)最高一百四十三圓、土牛毛三十一圓八十錢、오고(금초)三十圓六十錢이라는 好時勢를 무하야 木浦와 麗水에 比하면 生產高로보나 時勢로보나 優勢를 자랑하고잇다따라서 莞島에 大水產市場을 建設함에 一大基礎의 資源이라고 볼수잇스며 生產高와 販賣高의 比率로보아 莞島市場은 全朝鮮의將來標準市場이될것을엿보고 各關係者와 生產者는 一致合力으로 活躍하고잇다

▲八月十一日販賣統計

眞布	三三、八七七斤	三一、五〇三圓六〇
並布	三、六三三	一、三〇六圓三三
天草	三、五九四	八六四圓五〇
銀杏草	[illegible]	[illegible]
鹿尾草	[illegible]	[illegible]
土牛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오고	[illegible]	[illegible]
花布	二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生產組合擴充 仲介人排除

平壤栗生產者對策

【平壤】今年의 平壤栗은 [illegible]과 旱魃로 因하야 前年보다平壤栗은 一割八分、普通栗은 一割三分의 減收를 豫想하고잇는데 今秋의 初賣는 昨年의 十月十八日에 比하야 約十日이遲延하야 九月末日頃으로 推測되다 栗의 凶作이란 消息이 傳하자 市價는 高騰한 氣運에向하고잇는데 또 各生產地에서는 從來에는 仲介人에게 利益을弄斷을 當하든 實情에 鑑하여生產者自身이 直接市場에 賣却코저 平壤生產組合을 一層擴充하는 同時에 平壤栗檢查所에서도 平壤栗의 品位를 向上식혀 聲價를 [illegible]하고 生產者의 [illegible]를 [illegible]코저 山林支部에서는 [illegible]을 驅除하기로되엿다 한다

燃料試驗設 中試에서擴充

燃料國策問題는 [illegible]定을보아 既報한바와가티 燃料[illegible]稱까지 發表되엿거니와 燃料國策에 對하야 總督府에서도 今般 그에對하야 關係各局의 協議를 거듭하는 一方 中央試驗所의 燃料試驗의 擴充 其他代用燃料의 試驗施設을 着着 準備中이라고 한다

日用商品市況

二十二日 京城市內의 雜穀、海產物、砂糖及 麥粉市況은 大體다음과갓다

▲大豆 底堅

[illegible]內地의 豆粕相場도 一段高를 告하고 滿洲도 保合이나 新穀期까지의 供給不足豫想으로 底堅하다 今日市勢는 每石에

黃山 一等 二二、九〇
[illegible] 二二、六〇

▲粟 漸落

[illegible] 今年作況은 滿洲는 昨年에 比하야 一割二分增收豫想이며 朝鮮은 降雨가 늣저서 平年作이나 多少減收되리라한다。 當地實行不振으로 買氣가 委縮되고 手持品의 賣拔에 汲汲하든 [illegible] 今月中 最高價에 比하야 約二十錢가량 低落되엿스나 亦是 [illegible]入荷에 依하면 每石에

奉天特等 八、八〇
四平街 八、九〇

▲大麥 保合

實需閑散하고 市勢保合이어서 每石에

秋麥(大邱) 九、二〇
春麥(鎭南浦) 七、八〇

▲小麥 浮動

日氣不順으로 出廻가 稀少하야 產地側은 賣惜하며 外麥의 一高一低에 浮動中勢이다 大體로 外麥採算點에 接近된 市勢임으로 現在以上의 騰貴는 바라기 어려우나 投機買持側의 投機成功으로 其態度는 輕視하기어려운만큼 假令 外麥이 多少抵弛되드라도 朝鮮만은 相當히 頑强한市勢를 보리라고 豫測된다 每石에對한今日市勢는

沙里院 二〇、五〇
新 幕 二〇、三〇

▲胡麻 續落

滿洲、上海는 如前히 品質로保合이나 天津方面은 輸出不振으로賣合品이 續出하야 連日軟勢이다今日市勢는每石에

南京一等 一五、八〇
奉 天 一五、七〇
天 津 一五、六〇

▲암치 保合

암치도 그間多雨로 腐敗物이多하야 入荷、賣行 共히 普通狀態인데 今日市勢는 한손(二尾)에 對하야 一圓 乃至三圓이다

▲明太 不變

乾明太는 需要의 減少로 入荷도 殆無狀態인데 市勢는 前週同樣으로 한쫙(三十두름)에 對하야 二十圓으로부터 二十三圓가량이다

▲大口魚 保合

乾大口는 亦是 雨天關係로 市況이 不振狀態이어서 今日市勢는 每斤에 二十五錢 乃至 二十六錢가량이다

▲미역 保合

미역은 長霖後에 漸次需要가는러가는 傾向인데 아직 入荷나 需要가 普通狀態이어서 그市勢는 한손(二十닙)에 對하야 一圓三十錢 乃至 二圓五十錢가량이다

▲메르치 不振

메르치는 上品의 入荷가적은關係로 依然 市況이 不振狀態인데 그市勢는 九十錢 乃至 一圓三十錢가량이다

▲砂糖 弱保合

砂糖은 長霖이지난 今日에잇서서도 氣候가 依然不順한關係로 需要가 준채를 回復이되지못하야 市況이 不振狀態에잇서 市勢는 弱保合을 示하야 今日六十斤(百斤)에

白砂糖 一三、九〇
黃砂糖 一〇、八〇
黑砂糖 一二、[illegible]
分蜜糖 一七、[illegible]

▲麥粉 强保合

麥粉은 原料新麥의 出廻遲延으로 依然 市勢의 强調를 示하야 今日市勢는 [illegible](二十二斤)에 對하야 四圓九十五錢의 高價를 示하고잇는데 不遠間新麥의 影[illegible]리라고한다

八月中旬米及輸移出入高

▲米輸移出高 (玄米換算單位石)

	輸出 今年	輸出 前年	移出 今年	移出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中旬	五九	四三二	一五〇、一六〇	九九、六〇五	一五〇、二一九	九九、六六六
八月以後累計	三四、八五五	一三四、一〇七	八、三五八、四〇七	八、〇六一、五〇五	八、三九三、二六二	八、一九五、六一二

▲米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中旬	三	八	二〇、四三五	三、〇三〇	二〇、四三八	三、〇三八
八月以後累計	六六〇	三三五	八六、七七二	一三七、〇七五	八七、四三二	一三七、四一〇

▲粟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中旬	三、〇九九	三、三三三	—	—	三、〇九九	三、三三三
八月以後累計	一、一八六、八四四	九八三、四三三	一一、四五五	二七、四四四	一、一九八、二九九	一、〇一〇、八七七

【備考】七月中正誤=▲移出米誤三三四、八九七 正三三五、〇九八

朝鮮에도實施될 國有財產法全文 (四)

第三章 境界查定

第十四條 國有財產에 對하야境界가 分明치안흔것이잇는境遇에잇서當該官廳 必要라고 認한때 又는 隣接地所有者의申請이잇슨때는 當該官廳은그境界查定을 施行할것

第十五條 境界查定을 施行하려는때는當該官廳은 그日時 及場所를定하야 書面으로써 隣接地所有者에게 이를通知할것

前項의 書面의 送達은 期日에 對하야 미리 隣接地所有者의 承認이잇슨 境遇를 除한外 期日의 前日부터 起算하야 적어도 七日前이될것

第十六條 隣接地所有者는 期日에 立會할수업는事由를 申出할때는 當該官廳은 그期日을 變更함을得함

前條第二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適用치아니함

第十七條 境界查定을 了한때는 當該官廳은 書面으로써 隣接地所有者에게 이를 通知할것 隣接地所有者는 當該官廳又는 그指定한 官公署에 對하야 查定圖 又는 그謄本의 閱覽을 求함을 得함

第十八條 當該官廳은 第十五條又는 前條의 通知를 한때는 配達證明郵便에 依한 境遇를 除外하外 그受領書를 徵할것

第十九條 國有財產法 第十二條의 公告는 官報로써 이를하며 또關係市區町村長 又는 이에 準할 者로하여금 揭示其他의 方法에 依하야 이를 하게할것

第四章 貸付及準貸付

第二十條 共公用財產 又는 公用財產으로할 目的으로써 寄附를受한 國有財產은 그用途에 供치안는 期間 無償으로서 이를 그寄附者 又는그相續人 其他의 包括承繼者에게 貸付함을 得함

第二十一條 隨意契約에 依하야 國有財產을 貸付하려고할때는 當該官廳은 貸付料를 評定하야 그基礎를 明白히한 調書를 作成할것

第二十二條 前二條의 規定은貸付에 依치안코 國有財產의使用 又는 收益을 하려는 契約에 對하야 이를準用함

第二十三條 雜種財產에 對하야 土地의開拓 又는水面의埋立又는 干拓의 事業시키는 契約을 하려는境遇에잇서서는 當該官廳은 事業者로부터 左의 事項을 具한 事業計畫書를提出시킬것

一、土地 又는 水面의 所在及 面積
二、事業의目的
三、事業施行의 方法及 順序
四、成功豫定期間
五、收支豫算
六、計畫圖

事業成功의後 公共의 用에供할 部分이잇슬때는 그位置及 面積을事業計畫書에記載식힐것

第二十四條 國有財產法 第二十一條 第一項의 規定에依하야 國有財產의 賣却 又는 有償貸付의契約을 하려는때는 當該官廳은 賣却價格 又는 貸付料를評定하야 그基礎를 明白히한調書를 作成할것

前項의 規定은 國有財產의讓與 又는 無償貸付의 契約을 하려는 境遇에 이를準用함

第二十五條 事業의 成功에 要하는 豫定期間은 契約日부터 十年以內에 이를定함

天災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야 必要가잇다고 認하는때는 當該官廳은 前項의 規定에 依하야定한 期間의半에 相當한 期間以內에잇서서 豫定期間의延長을 承認함을得함

第二十六條 當該官廳은 契約日로부터 二年以內의 期間을指定하야 事業者로하여금 그事業에 着手시킬것

前條第二項의 規定은 前項의 期間에對하야 이를 準用함

第二十七條 國有財產法 第二十三條의 規定에 依하야 事業者에 對하여 成功部分의 賣却 讓與 又는 貸付를하려는境遇에잇서서는 當該官廳은 特別한 事由가잇다고 認하는境遇를 除한外 契約에 定한 條項에 準하야 그契約을할것

第二十八條 國有財產法 第二十四條第一項에 規定한 雜種財產의使用 又는 收益에 對하야서는 寺院 又는 佛堂에關한主務大臣의定하는바에依할것

第二十九條 寺院 又는佛堂, 國有財產法 第二十四條第二項의 規定에依하야 雜種財產의 貸付를 受하려는때는 地方長官을 經由하야 主務大臣 그財產을 管理하는 大臣及大藏大臣에게 出願할것 前條의 規定은 前項의規定에 依하야貸付한 雜種財產에 對하야 이를準用함

第五章 臺帳

第三十條 國有財產의 臺帳은所管의 各省에 이를 備할것

但 部局의 長이 國有財產의 關한 事務를 分掌하는 境遇에잇서서는 그部局마다 이를 備하고 各省에는 그總括簿를 備하는것으로함

第三十一條 國有財產의 臺帳은 그種類마다 이를 調製하야左의 事項을 記載할것 但財產의 特質에 依하야 그記載事項을 省略함을 得함

一、種目
二、所在 又는 所屬
三、數量
四、價格
五、得喪變更의 年月日及 事由
六、其他必要한事項

第三十二條 國有財產의 臺帳에 登錄할 價格은 購入에 關한것은 購入價格、交換에 關한것은 交換當時의 評定價格、收用에關한것은 補償金額에依하야 其他의것은 左의區分에依하야 이를定할것

一、土地에對하야는 類地의時價에 比準하야 算定한金額
二、立木竹에 對하야는 그材積에 單價를 乘하야 算定한金額、但木 其他材積을 基準으로하야 算定하기 어려운 立木竹은 推想價格
三、建物 其他의 工作物及船舶 其他의 動產에 對하야도 建築費、製造費 又는 推想價格
四、權利에對하야는 第一條第四號에 揭하는것은 推想價格 第五號에 揭하는것은 拂込金額 又는 出資金額

第三十三條 國有財產現在額 總計算書調製의年 三月三十一日의 現況에 依하야 이를 改定할것 但 臺帳에 登錄한後 二年을 經過치안흔것에 對하야는 此限에不在함

前項의 境遇에잇서서 土地의 價格은 類地의 時價에比準하야 立木竹의 價格은 그材積에 單價를 乘하야 이를 算定할것 但 既木 其他 材積을 基準으로하야 算定하기어려운 立木竹에 對하야는 推想價格에 依함

前二項의 規定은 帝國鐵道會計及 通信事業特別會計에 屬하는것에 對하야 이를 適用치안함

第三十四條 作業會計 又는 道路特別會計의 固定資本에屬하는것의 價格은 前二條의規定에 不拘하고 그資本價格에依할것

第六章 計算書及報告書

第三十五條 各省大臣은 會計檢查院에 證明하기 爲하야 國有財產의 增減計算書를 調製하야 證憑書類를 添附하야이를 會計檢查院에 送付할것但 前項의 計算書는 國有財產에關한 事務를 分掌하는 部局의 長으로부터 곳會計檢查院에送付시킴을得함

第三十六條 各省大臣은 每會計年度間의 國有財產增減報告書를 調製하야 翌年度八月三十一日까지에 이를 大藏大臣에게 送付할것

大藏大臣은 各省의 國有財產增減報告書에 基하야 國有財產增減總計算書를 調製하야 各省의 國有財產增減報告書와 共히 이를 會計檢查院에 送付할것

第三十七條 各省大臣은 每五年三月三十一日現在의 國有財產現在額報告書를 調製하야 그해 九月三十日까지에 이를 大藏大臣에게 送付할것

大藏大臣은 各省의 國有財產現在額報告書에基하야 國有財產現在額總計算書를 調製하야各省의 國有財產現在額報告書와共히 이를會計檢查院에送付할것

第七章 雜則

第三十八條 本令에 定하는것을 除한外 國有財產의 臺帳에 關하야 必要한 事項은 大藏大臣이 이를 定함

第三十九條 第三十五條에 規定하는 計算證明書類의 樣式及 送付期限에 對하야는 會計檢查院의 定하는바에 依할것

第四十條 前條에 定한것을 除한外 本令에定하는 諸計算書의 樣式은 大藏大臣이 이를 定함

第四十一條 本令에定하는 帳簿及 書類의 樣式에는 國防上 秘密을 要하는 國有財產에對하야 必要한 特例를 設할것

附 則

第四十二條 本令은 國有財產法 施行의日부터 이를施行함

第四十三條 左의 命令은 이를 廢止함 但 官有財產의 增減異動으로서 本令施行前에 關한것의 報告에對하야서는 從前의 例에依함

明治七年九月二十三日達皇城周圍內外의 溜池等 修繕改築에 關한件
明治八年第百四十六號達
明治八年第百九十八號達
明治九年第四十六號達
明治十二年第六號達
明治十三年七月八日達皇城周圍內外의 濠溝外岸接近의 官有地에 家屋等建築에 關한件
明治十四年第十號達
明治十六年第四十五號達
官有地特別處分規則
官有財產管理規則
官有地取扱規則
明治二十四年勅令第十五號
明治二十七年勅令第九十二號
明治三十六年勅令第九十六號
明治三十九年勅令第二百二十號
明治四十一年勅令第百十九號
明治四十二年勅令第七十號
大正六年勅令第二百二十四號

第四十四條 本令施行의 際에잇서서의 各省所管의 雜種財產은 國有林野及 北海道 國有未開地를除한外 第二條의 規定에準하야 本令施行日의 現在에依하야 이를 大藏大臣에 引繼할것

第四十五條 本令施行의際 國有財產의 臺帳에 登錄할土地及 立木竹의 價格은 그購入、交換 又는 收用에 關한것이라할지라도 爾後二年을 經過한것에 對하야는 帝國鐵道會計에 屬하는것을 除한外 第三十二條第一號 又는 第二號의 規定에 依하야 算定한金額에 依함

第四十六條 各省大臣은 本令施行日의 現在에잇서서의 國有財產 現在額報告書를 調製하야 그해 十月三十一日까지에 이를 大藏大臣에게 送付할것

第四十七條 前三條에 規定한것을 設한外 本令施行에 關하야 必要한 事項은 大藏大臣이 이를 定함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三三一	石炭	全南長興郡長平面 有治面	七月二十五日	金山郡[illegible]邑 [illegible]
一三三三二	金銀鑛	咸南永興郡宣興面	七月二十五日	永興郡洪仁面 代表者 李[illegible]俊 同 咸京淑
一三三三三	同	忠北淸州郡南二面	七月二十五日	淸州郡南二面 代表者 朴[illegible]基 同 [illegible]德春
一三三三四	同	慶北[illegible]郡知品面	七月二十五日	咸興府大和町 代表者 金元圭 [illegible]郡知品面 金[illegible]鳳
一三三三五	同	江原江陵郡城山面	七月二十五日	京城府長沙町 薛元植
一三三三六	同	忠南天安郡笠場面 成歡面	七月二十五日	京城府鐘路 吳佐殷
一三三三七	金銀鉛鑛	江原春川郡北山面	七月二十七日	東京市麴町區內幸町 朝鮮鑛業株式會社
一三三三八	砂金	全南寶城郡烏城面	七月二十七日	順天郡順天邑 金[illegible]
一三三三九	金銀鑛	全南咸平郡大洞面 新光面	七月二十五日	論山郡陽村面 金璋洙
一三三四〇	同	平北寧邊郡百嶺面 龍山面	七月二十七日	東京市澁谷區神山町 淸水長卿
一三三四一	同	平北朔州郡朔州面	七月二十七日	東京市澁谷區神山町 淸水長卿
一三三四二	同	京畿楊州郡長興面	七月二十七日	東京市澁谷區神山町 淸水長卿
一三三四三	金銀銅鑛	忠北沃川郡靑城面 安南面	七月二十七日	京城府漢江通 因幡乙松
一三三四四	金銀鑛	江原淮陽郡上北面	七月二十五日	元山府榮町 金泰成
一三三四五	黑鉛	平北江界郡公北面	七月二十七日	江界郡江界邑 金喆洙
一三三四六	金銀鉛鑛	咸南定平郡高山面	七月二十七日	咸興府大和町 代表者 吉本太一郞 同知樂町 李[illegible]河 同城川町 朴[illegible]慶
一三三四七	金銀鑛	全南谷城郡梧谷面	七月二十七日	京城府平洞町 代表者 韓[illegible]德 南原郡南原邑 梁[illegible]
一三三四八	同	平北昌城郡大倉面 新倉面	七月二十八日	淳原郡崇正面 李[illegible] 京城府寬勳町 姜宅熙 淳原郡崇正面 金[illegible]
一三三四九	同	全北茂朱郡赤裳面	七月二十九日	茂朱郡茂朱面 杉原與一郞 同 朴之祥 同 李秉頊 同 金[illegible]乙
一三三五〇	同	平北碧潼郡松西面 昌城郡昌洲面	七月三十日	碧潼郡松西面 代表者 李正善 昌城郡昌洲面 [illegible]
一三三五一	金銀鉛鑛	咸南永興郡橫川面	七月三十日	元山府銘石洞 許[illegible]承 同 許[illegible]實 同 許[illegible]洛 同 許[illegible]默 同 許[illegible] 代表者 永興郡鎭平面 金浩鉉 董成華

◇鑛業代理人屆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七二五二	平北朔州郡外南面	石福鑛業株式會社	京城府黃金町 菅原省一을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七月十七日屆出
一一七六 一二四五	咸南北靑郡泥谷面	金井鑛山株式會社	同岡崎町 鶴義成을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七月二十一日屆出
一三〇七九	平南寧遠郡成龍面 永業面	金珍守	寧遠郡成龍面 文永壽를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七月十九日屆出
一〇一一一	京畿安城郡大德面	岩田辰雄	安城郡大德面 崔承壽를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七月二十二日屆出
一三〇五三	咸南定平郡長原面	海部芳太郞	咸興府山手町 [illegible]을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七月二十日屆出
一二一一八	江原橫城郡晴日面	田島登	橫城郡晴日面 金鳳浩를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七月二十七日屆出
七七七四 一〇一三六	京畿楊平郡砥堤面 驪州郡北內面 同楊平郡砥堤面	東亞礦產株式會社	鑛業代理人谷岡謙을解任하고楊平郡砥堤面 曺世長을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七月二十日屆出
八九三九 九二四五	忠南大安郡瓊居面 稷山面	同	鑛業代理人谷岡謙을解任하고天安郡稷山面 林德佐衛門을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七月二十日屆出
八一〇六 九四八三 一一六八四 八九九二 [illegible]	咸南定平郡高山面 同新興郡東上面 豊山郡安水面 同定平郡內面面	三和鑛山株式會社	咸興府中央町 盧義根을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七月二十八日屆出
一一九一四	平北熙川郡南面	朴炳華	平壤府南山町 金[illegible]을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七月二十九日屆出
六二四一 九五〇二	慶南固城郡上里面 大可面、永縣面	岡崎博	固城郡上里面 松本巖을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七月二十八日屆出
一三一九八	江原淮陽郡上北面	小串政次	淮陽郡淮陽面 宋炳元을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七月十四日屆出
一三一八六	全南羅州郡旺谷面	秦奎世	京城府勸農町 秦[illegible]을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七月十四日屆出
一二九一(四六) 一三二三	平南平原郡東岩面 潘南面	日本鑛業株式會社	鑛業代理人 [illegible]을解任하고 京城府南山町 [illegible]을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七月十五日屆出
一二八九五	咸南高原郡山谷面	松本新一郞	高原郡水洞面 米本時之介를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七月十五日屆出
一一六二	慶北榮州郡[illegible]面	白繡思	榮州郡榮州面 織田彰之輔를 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一年七月十六日屆出

黃昏 (164)

韓雪野 作 安夕影 畫

군상(群像) (五)

「만성이、만성이……」

혈보가 눈을 부라리며 크게 웨친다。

만성은 흠은 소재본다。

여기저기 모혀서서 이얘기를 하고잇든 사람들은 모다 소리나는편으로 머리를 돌렷다

혈보는 제깜에 골이 벗적올라서 벌어얼굴을 해가지고터버 터벅 걸어오며 여러사람에게다시 웨친다——

「만성이 어드갓서?」

그러나 모다、그걸 누가아느나 하듯이 비슬비슬 물러서서 장기두는것을 드려다보며 저이끼리 무어라고 수군덕거리고잇다。

「흠은녀석이 툭하면 어데로가는거야」

하며 혈보가 이놈 저놈만 바라 하듯이 혼자 두덜두덜하며 저편으로 걸어간지 조곰 이슥해서

「거、대체 무얼하구 다니는거야?」

하는 험상구즌 소리가 난다 만성이가 발견되엿든것이다。

「이리와……」

이러케 웨치는혈보의 뒤에서 허리고분 만성이가 빗자루를들고 공장안으로 들어섯때에 혈보는

「어서 걸레를 가지고 이리와……그리고 그비도 가지고」

하고 만성이를 돌아다보며 또 웨친다。 만성은 별말업시 걸네를 가지고 혈보의뒤를 따라갓다。

「흥 변소로 들어가네」

누가 이러케말하자 공장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든사람들이 공연히 떼다라 그의뒤를 따라갓다。

「저리들가 어듸로오는거야?」

혈보가 돌아서서 오지말라고 소리치는통에 직공들은 되려더보구십허나서 우루루 따라섯다 혈보는 떼다밀듯이 저리가라고 웨치고는 혼자말로

「이놈 어느놈이면 걸리만 봐라」

하며 변소스간에 적문을 절러 밀어버리고 만성에게 현질을한다。

만성은 혈보의허이 가르치는데로 맨첫번소문부터 열엇다

「이런——글씨 써는뒬 빡빡지이러노하야」

혈보는 걸다란비를 들고 지저분한 변소안벽을 이곳 저곳 가르친다。

만성이는 시키는대로 해보앗스나 좀처럼지지안흠으로。

「걸레질해야 안지는뎁쇼」

하고 혈보의처분을 기다리듯 돌아다보며 걸레질을 하고 잇다。

「안지다니?……침을 내서빡빡 문질레……」

「어떤자리는 저지안코 어련! 쇠못으로 거는자리는 절대하면 되러 더듬듬히 빼는법쇼。 이걸쭘쇼그려」

「쇠못으로 써놧서? 망할놈재하데비 비석이줄 아나? 쇠못으로 새여노캐……엥히 주접땔 얘걸놈을 가르니」

하고 혈보는 그곳을 한참노려보다가 만성에게

「사무실에 가서 먹통을 가저와」

하고 우왁하게 외친다。

만성은 글자를 모르는까닭에무슨 락서이지는 모르나 공연히 머니 분통이나서 혼자스말로후얼지 말아둘좋수 업는 소리를 두덜두덜하며 사무실로 가는판인데 젓사람들은 거、조혼 구경 꺼리니 업느냐? 하듯이엽흐로 알흐로 련해 욱여들며

「대체 그안에서 무얼하는거요?」

하고 못는다。

만성은 더욱화가 나서

「내가 알우……」

하고 흥명스레 쏘아붓치고 흔자스말로

「글공부 할데가 업서서……변소에다 글을써노아? 엥히、처죽일놈들……」

하고 걷치를 탁뱃는다。

「뭐라고 썻서요? 영감……」

「맹재잃인지 공재잃인지 내가 알까닭이 뭐유?」

하고 만성이가 사람을 허치며 사무실로 들어가라는것을

「하、하、그건가보군!」

「영감、지이지말고 그대로 두소。 전 책보는셈치고 좀 읽어보게……」

하고 누가 말할때에 바루 그뒤에 섯든 사람이 엽구리를 쿡찌르며、

「쉬ㅡ、혈보가 내다본다」

하고 슬쩍 눈짓을 한다。

그리자 그사나히는 시침을 똑떼고 천정을 처다보며

청청한 하늘엔
별도 만코……
이내나 공장엔……

하고 천연덕스러게 아리랑조를 때자 그뒤에 잇든 사람이 그소리를 바다준다

만성이가 먹통을 들고 다시 변소로 들어간지 한참 이윽해서야혈보와 만성은 다시 공장으로 나왓다

여러사람들은 혈보의 기색자가 하고잇섯다。

「그것세 바루 그거야」

누가 변소에서 뛰어나오며이럭케 웨치자 동시에 여러사람은 「공장간판의 뒤에오는것」을 곳직각하였다